

만남

특집 부활절

04 2023
통권 590호



CONTENTS

이달의 말씀

02 함께함 김운성

특집 | 부활절

04 흠과 꽃 권혁일

07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김태영

특별기고 | 한경직 목사 23주기 추모

10 한경직 목사님과 설교 오창학

특별기고 | 코로나 이후 살아나는 선교

13 더 적극적으로 선교사 파송해야 이광순

04



34

땅끝까지 이르러

16 복음이 시작된 곳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는 계속됩니다 김정혁

다음세대

19 찬양·울동...교회 가는 게 재밌어요 백지안

20 서로의 믿음을 지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전차윤

24 흔들리는 마음 붙잡아 준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기도합니다 김예은

26 “부활의 증인이 되라”
성령님 부르심에 순종 김윤아

28 은혜로 가득찬 ‘구덩이’ 이사무엘

교회표어

말씀따라 행진하라
(만수기 9:23)

영락교회 신앙지도 원칙

- 건강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 교회연합 정신의 구현
- 세상에서 하나님공의의 실현

5대 본질



만남

2023년 4월호 통권 590호



42

야곱의 우물가

- 30 장애인, 주의 보내심을 받은 ‘한 사람’ 진영채
- 32 하나님 말씀에 깊이 감동한 사랑부 서울식물원 나들이 최창호
- 34 사랑부엔 졸업이 없습니다 사랑부

영락의 울타리

- 36 확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정창대
- 38 수확으로 보는 명화 ‘천지창조’ 계영희
- 42 빈혈, 다른 질병 신호일 수도 장은아

문화광장

- 45 우리와 함께 유하시이다 백정진
- 48 신앙 용어 바르게 사용합시다 강승훈
- 50 나는 왜 믿는가? 현성인
- 51 하얀 십자가상 정재원

교회소식

- 52 80주년 비전을 위한 특별금요기도회 외

4월 목회력

- 01 토 • 영락가족 특별새벽기도회
- 02 주일 • 종려주일·찬양예배 성찬
- 03-08 •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 07 금 • 성금요일·연합권찰모임
- 09 주일 • 부활주일·부활주일 음악예배·제직회·새가족환영회
- 14 금 • 환경직목사 기념예식
- 16-22 • 환경직목사 기념주간
- 23 주일 • 사회복지재단 헌신예배·다음세대 기도회·사회봉사주일
- 26-28 • 산상기도회

표지설명

부활절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기념일 중 하나로, 죽음과 승리의 극복을 상징하며, 우리에게 새로운 삶과 시작의 희망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부활절은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새로운 계획과 희망을 나누기에 좋은 기회가 됩니다. 부활절 계란은 부활의 대표적인 상징이며, 밝은 색은 부활의 희망과 기쁨을 나타냅니다.

함께함

김운성 위임목사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마태복음 1:23)

본문은 성탄절에 자주 읽는 말씀으로써 성탄절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탄생하심으로써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탄절 메시지의 핵심 구절을 4월에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탄과 고난은 사실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이유가 고난당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성탄의 핵심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으로 정리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후 에덴동산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영적 죽음이라 하겠습니다. 죄로 인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심으로 사람은 다시 임마누엘, 즉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함께함〉이 성사되려면 많은 과정이 요구됩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남녀가 함께하는 것은 두 사람 모두에게 기쁨입니다.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할 시간만 기다립니다. 함께하기 위해 달려가는 것을 조금도 고통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떨어지는 것이 고통입니다. 그래서 평생 함께하기 위해 결혼합니다. 그러나 서로 미워하거나, 한쪽만 짝 사랑하는 경우에 함께하는 것은 아주 다릅니다. 서로 미워하는 사람들이 어떤 목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함께하는 것이라면 둘 모두에게 극악의 고통일 것입니다. 자리를 털고 일어날 시간만 기다릴 것입니다. 짝사랑하는 때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기쁨으로 달려가겠지만, 그 상대방은 오히려 괴로울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하는 것, 임마누엘은 어떻게요?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짝사랑하심으로 성사되었습니다. 인류의 첫 죄악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에 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 하거나, 거짓 하나님들, 말하자면 우상들을 수도 없이 만들어왔습니다. 자신들의 고통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데서 온 것임 알지 못한 채,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애타게 짝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탄생하셔서 사람과 함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향한 짝사랑 '임마누엘'

그런데 사람과 함께 계심은 하나님께서는 고난입니다. 마치 사람이 땅에 기는 벌레처럼 되어 벌레와 함께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몸을 입으시는 것이 고난입니다. 죄악의 세상에 오시는 것이 고난입니다. 또 세상에 오셔서 사람이 당하는 모든 고통을 체험하신 게 고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보통 사람도 경험하지 않는 십자가의 죽음을 받으셨고, 무덤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사랑하지도 않는 인생들을 향해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계속 고백하시는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처절한 하나님의 짝사랑입니다.

주님의 고난은 찾아가는 자의 고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오셨습니다. 발품을 팔아 갈릴리 해변의 어부들에게 오셨고, 가버나움 세관의 레위에게 오셨습니다. 먼저 오는 분이 고난을 받습니다. 함께하기를 원하는 이가 고난을 받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야 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예수

님의 제자들의 실패는 함께하지 못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다락방 만찬이 끝난 후에 겹세마네에 갔지만,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기까지 기도하는데, 그들은 잠을 잤습니다. 겹세마네의 기도 후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하셨지만, 그들은 도망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많은 순간에 "함께 가자,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도 찾아가는 고난을 경험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계신 곳에 함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함께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우리 마음을 연결해야 합니다.

이젠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기를 사모해야

요즘 많이 부르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 중에 다음 부분이 있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 영원토록 주 위해 살리라 주 위해 살리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로 나아가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못 박히신 손과 발에 우리 손과 발을 포개고,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 이것이 찾아오신 은혜의 주님으로 인한 임마누엘에 응답하는 우리가 찾아감으로써 만드는 <신 임마누엘>이라 하겠습니다. 사순절과 고난주간과 부활주일까지 이어지는 거룩한 기간에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과 함께 감당하는 일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만남**

흙과 꽃



대략 백 번쯤 된 것 같다.
이곳 영락동산에 올라온 것이.

정확하게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영락교회에 부임한 후 지금까지 백여 분의 장례를 치렀다. 그래서 영락동산에 올라가면 묘비에 새겨진 이름들 중 아는 분이 드문드문 눈에 띈다. 지난 몇 년 사이에 장례를 집례하여 이곳에 모셔드린 교구 성도님들이다.

오늘도 하관예식을 마치고, 천천히 걸어서 묘역을 빠져나오며 이름들을 살펴본다. 그러다 한 곳에서 발걸음이 멈추었다. 한두 달 전에 장례를 치른 분인데, 아직 비석도 세우지 못하고 잔디도 입히지 못한

묘에 누군가가 가져다 놓은 하얀 장미꽃이 놓여 있다. 오전 열 시 반. 제법 높게 뜬 해가 흙만 덮여 있는 무덤을 따스하게 덮고, 흙 위에 놓인 하얀 장미들은 햇볕 속에 잔란하게 빛난다. 그것을 보니 입관실에서 뵈었던 고인의 모습과 이별을 슬퍼하던 가족들의 얼굴이 떠오른다.

지난 2월 22일, 올해의 사순절이 시작되는 ‘재의 수요일’에도 이곳 영락동산에 올라왔었다. 그리고 한 집사님의 하관예식을 집례하며 <흙에 담긴 비밀>이란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전했다.

재의 수요일은 사순절의 첫 시작을 알리는 날입니다. 부활절 전 40일 동안 예수님의 삶과 수난을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의 첫날이 바로 재의 수요일입니다. 이날을 ‘재의 수요일’ (Ash Wednesday), 또는 ‘성회 수요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전통적으로 재의 수요일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자는 재의 뿌림을 받거나, 이마에 재로 된 십자가 표식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배자들은 “사람아, 기억하라.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



권혁일 목사
동대문·중랑교구
영락수련원
영락기도대

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금지된 열매인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고 준엄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에 따라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도록 운명지워졌습니다. 그러므로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주로만 끝나지 않는 이유는 인생이 흙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바울 사도는 혈과 육, 곧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썩지 않는 영원한 나라인데,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 노화하여 쇠약해지고, 죽으면 썩어서 흙이 되는 유한하고 일시적인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이 몸 그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여도 그곳에서 우리는 이 유한한 육신으로는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한 가지 비밀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장차 때가 되면, 우리 모두 흙에 속한 몸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몸, 신령한 몸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해졌습니다. 하나님인 예수님께서서는 한낱 흙에 불과한 사람을 사랑하시어, 직접 흙으로 된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몸으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며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무덤 속에서 썩어 소멸되지 않으시고 다시 하늘에 속한 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흙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얻게 되었습니다. 흙 속에서 영원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잠자다가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밝히 나타난 비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비밀’로 번역된 그리스어 ‘μυστήριον’(미스테리온)은 비밀이라는 뜻 외에 ‘신비’라는 뜻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부활을



통해서 나타난 이 신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비밀로 남아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는 영원으로 들어가는 신비입니다.

고인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셨고, 푸른 풀밭과 실 만한 물가와 같은 영원한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는 소망 안에서 잠드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집사님의 육신을 이 차가운 겨울의 땅속에 묻지만 집사님께서서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여 봄과 같은 천국에서 신령한 몸을 입고 다시 깨어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이상 질병도 고통도, 눈물도 애통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실 것입니다. 오늘 부른, 집사님께서 즐겨 부르시던 찬송처럼 천국에서 주님의 '그 빛난 얼굴 뵈고 그 영혼이 기쁨으로 가득 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흠으로 된 육신을 입고 있지만, 고인의 신앙을 따라 흠에 담긴 신비를 마음속에 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남은 인생 여정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함께 걸어갑시다. 아멘.

우리 교회에 속한 여러 장소들 중에서도 부활의 소망이 가장 뜨겁게 살아 있는 곳이 이곳 영락동산이 아닐까? 7단지에 모셔져 있는 한경직 목사님은 물론 이곳에 잠들어 있는 성도 모두 부활의 소망 가운데 마지막 나팔을 기다리고 있다. 성경에는 부활의 시기에 관해 두 가지 사상이 나온다. 먼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회개하는 한 행악자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누가복음 23:43)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성도가 죽으면 곧 부활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죽은 자들은 무덤에서 잠자다가 ‘마지막 나팔에’ 일어나 순식간에 신령한 몸을 입고 변화하는 것이라 설명한다(고린도전서 15:51). 이 두 가지가 서로 모순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기 때문이다(베드로후서 3:8). 영원하신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는 분이시고, 하나님 나라도 그러하다. 아마도 그리스도 안에서 눈을 감는 이들은 부활할 때 ‘오늘’ 다시 눈을 뜨는 것으로 느끼지 않을까?

‘재의 수요일’로 시작하여 부활절로 마치는 사순의 여정은 우리의 인생을 담고 있다. 우리는 모두 흠에서 와서 흠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 만약 살아 있을 때 주님의 재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흠과 재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사순절은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지기보다 항상 부활절을 준비하는 날로써 존재한다. 사순절을 보낸 후 이 땅에서 맞는 부활절은 일종의 예행연습이다. 아직 우리는 흠으로 된 육체 속에 살아가지만 부활의 신비를 조금이나마 맛보고 기대하는 날이 부활절이다. 교회 전통에서 하얀색은 부활을 상징한다. 영락동산에서 하관을 할 때는 관 위에 하얀 꽃을 살짝 던져 넣고 흠을 덮는다. 그리고 자연장을 할 때에는 골분을 흠 속에 넣고 그 위에 국화를 올려 둔다. 이러한 헌화는 고인에 대한 사랑의 표현일 뿐만이 아니라, 흠으로 돌아가는 인간이 부활의 아침에 꽃처럼 다시 피어날 것을 믿고 소망하는 상징적인 행동이다.

12세기의 영성가 끌레르보의 베르나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육체는 죽음 가운데 심겨졌고, 부활 안에서 다시 피어났다”라고 아름답게 말했다. 주님 안에서 잠들어 흠에 심겨지는 우리 인간의 육신도 그날이 오면 그분 안에서 찬란한 부활의 꽃으로 다시 피어날 것이다. 겨울이 지나고 이곳 영락동산에도 이제 봄바람이 분다. **만남**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로마서 1:20)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은 하나님을 참 많이 닮았다.

도시의 화려함과 분주함으로부터 두어 걸음 떨어져 있는 가평으로 2년 전 이사한 뒤, 내가 자연을 더욱 사랑하는 까닭이다. 하나님을 닮은 자연은 늘 나에게 많은 질문을 던진다. “인간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유일한 동물이다”라는 남미 작가 루이스 베리시무의 통찰처럼, 온갖 매끈한 것에 환호하며 감각적인 것에 현혹되어 자기의 빛깔을 잃고 ‘과잉의 시대’를 사는 인간에게 자연은 “그런 삶을 사시느라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질문한다.

가평 2년 ... 자연에서 부활을 묵상

사순절 기간을 지내며 자연 속에서 부활을 묵상한다. 보아주는 이 없어도 척박한 모퉁이에서 늠름히 살아 올라오는 들꽃을 보며, 생명을 품은 씨앗의 삶과 부활의 의미를 되새긴다. 생명의 복음을 가진 부활의 삶!

심어진 곳이 어디든 바로 그곳에서 생명의 싹을 틔우고, 부활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다. 추운 겨울, 꽁꽁 얼어붙은 땅속에 작은 씨앗이 죽음처럼 숨어있지만, 어느새 언 땅을 뚫고 올라온 것처럼, 상처와 아픔이 있는 곳에 치유와 회복의 싹을 틔우고 싶다. 생명의 씨앗이 새 생명으로 부활하여 예배의 진정한 열매 맺기를 기도한다. 부활 신앙은 깊



김태영 장로
고양·파주교구
홍보출판부장

은 심연을 치유하는 존재의 빛으로 병든 마음을 치유한다. 큰 것이 좋은 세상에서, 보잘 것 없어 보이는 씨앗에서 부활 신앙을 본다. 예수님이 연약한 새순 같은 연약함으로 이 세상에 구원을 이루셨듯, 부활 생명의 근원 뿌리가 우리를 지탱하게 한다.

자연은 “지름길을 조심하라”고 말한다

자연의 사계절은 ‘추월선’이 없다. 봄이 여름을 건너뛰어 가을로 가는 법이 없다. 자연은 조금하거나 나태하지 않다. 자연은 자신만의 질서를 지키며 다른 사물과 어울려 융합한다. 삶도 그렇다. 차근차근 쌓아 올린 건물이 견고하듯 삶도 준비와 수고와 노력이라는 재료로 건축해야 붕괴가 없다. 노력 없이 목적에 다다르려는, 일확천금을 겨냥한 삶보다 불행한 삶의 방식은 없다. 산악인들은 깊은 숲을 걸어갈 때 가능하면 ‘지름길’을 피해서 간다고 한다. 인적이 많은 지름길 근처에 오히려 독사가 더 많이 서식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

이다. 삶도 다르지 않다. 삶이 어려울 때 눈에 쉽게 보이는 ‘지름길’을 조심해야 한다. 더디 가더라도 바르게 가야 한다. 자연은 지금도 나에게 “가장 빠른 길은 ‘지름길’이 아닌 ‘정도’이다”라고 속삭인다.

자연은 ‘생존의 철학자’이다

삶을 의미하는 한자어 생(生)은 ‘소(牛)가 외나무다리 (一) 위를 걷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거대한 소가 얇은 외나무다리 위를 걷는 것보다 위험하고 위태로운 것이 있을까? 그렇다. 삶의 본질은 무겁고 버겁고 위험하다. 이런 까닭에 대부분 사람은 고통을 두려워하며 때로는 그 고통을 피해 도피한다. 그런데 자연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자신만의 생존을 끝까지 이어간다. 결빙의 겨울을 이기고 봄이 탄생하듯 말이다. 현대인은 고난과 고통을 두려워하여 삶의 깊이를 잃어버렸다. 식물의 뿌리는 물이 부족할수록 더욱 깊이 뿌리를 내린다. 자연은 삶이 고단하다는 이유로 하나님



제공 이미혜 권사

께서 자신에게 위임하신 사역을 변명과 핑계를 대며 도피하는 자에게 “여울목을 만나야 물소리가 아름다운 법이다”라는 진실을 들려준다.

자연이 주는 선물 ‘쉽표·물음표·느낌표’

자연에는 쉬어가는 ‘쉽표’와 자연과의 대화의 ‘물음표’, 그리고 경이와 신비의 ‘느낌표’가 있어 삶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게 하며, 지친 우리 영혼을 감싸 안아주는 포근한 품이 되어주며, 삶의 무게 속에서 방황하는 우리에게 실마리를 제시한다. 자연에 있으면 왜 마음이 편해지는 걸까? 자연에는 도시의 화려함이 없지만, 그 ‘없음’으로 인해 ‘있음’이 더욱 소중해지기 때문이다. 자연에서 ‘숨’과 ‘쉽’을 찾는 인간은 무엇이든 자연에서 답을 얻는다. 베토벤은 자연 속에서 자유를 만끽하여 음악적 이상을 용솟음치게 하였다. 가장 효력 있는 안정제는 자연과의 내밀한 교제이며, 거슬림이 없는 자연의 소리는 인공적인 소리에 시달리는 우리 영혼을 정화해준다. 들숨과 날숨의 고요함이 맑은 정취를 청량한 삶으로 흘러 넣는다. 또한 나는 ‘작은 자연’이고 자연의 한 생명 리듬에 속해 있음을 깨달아 환경을 사랑하고 보존하며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창세기 1:28)라는 창조 명령은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마치는 글

모든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께 있다. 만물은 하나님의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 존재한다. 꽃과 바람과 새들이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해 기쁜 축제로 춤을 춘다. 영혼을 깨워 창조주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인식하게 하는 그 무



소부재(無所不在)한 음성을 들으려면 현대의 ‘소음’과 ‘산만함’에서 정기적으로 벗어나야 한다. 19세기 자연주의자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저서 『월든』에서 “인간에게 세 개의 의자가 필요하다. 곧 고독을 위한 의자, 우정을 위한 의자, 사귀을 위한 의자이다”라고 말했다. 소로는 숲속에 들어가 ‘고독을 위한 의자’에 앉아 자연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자연 속에 있으면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된다. 마르틴 부버는 “사람은 한 그루의 나무와 같다”라고 말했다. 나무 앞에 서서 그것이 어떻게 자라는지 관찰하더라도 볼 수는 없지만 성장하고 있듯이, 우리도 영적 거목이 될 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일상의 성화’를 이루어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한다. 그럴 때 어느덧 백향목처럼 여호와와의 성전의 재목이 되고 종려나무처럼 예수님을 맞이하는 쓰임새로 거듭나서, 우리의 삶은 봄날 ‘숲속에 사는 새와 같이 기쁜 삶’을 누리게 된다. **만남**

한경직 목사님과 설교



살아서 숨쉬는 한 목사님의 설교
성경 중심, 언행 일치... 공감과 울림
강단 설 때마다 “오늘이 마지막”

한국 교회 거성 추양(秋陽) 한경직 목사님은 2000년 4월 19일 서울 영락교회 사택에서 98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1902년 12월 19일(음력) 평안남도 평원군 공덕면 간리에서 태어난 후, 북한 공산 치하에서 탈출한 성도 27명이 모여 <베다니 전도교회>라는 이름으로 1945년 12월 2일에 첫 예배를 드림으로 영락교회를 창립한 지 55년 되던 해였습니다. 필자는 1978년부터 10년간 영락교회 부목사와 수석 부목사, 대리 당회장, 영락교회 35년사 집필 위원(송성찬, 장진호, 나학진, 윤두혁, 오창학)으로 섬기면서 한경직 목사님과 접촉을 많이 했습니다. 제한된 지면에 한 목사님이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에 끼친 영향과 업적과 생애를 모두 담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목사님을 추모하면서 <한경직 목사님과 설교>라는 주제로 빙산의 일각이나마 요약해보고자 합니다.

한국 교회 교회사의 대가인 민경배 박사는 한경직 목사님을 가리켜서 “한국 민족의 시련기에 기독교의 역사적인 소명이 무엇인가를 성경에서 찾고 그것을 현실의 문맥(설교)으로 호소할 수 있었던 남다른 능력의 예언자이셨다. 목사님은 온전한 신앙의 자세로 언제나 온유와 겸손의 모습으로 사셨던 분으로 기독교인의 가치를 삶을 통해 보여주신 우리들의 진정한 목

사님이셨다”라고 하셨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의 설교는 바로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기에 목사님의 설교는 살아서 숨 쉬는 명설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바르트(K.Barth)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기록된 말씀(성경)이고 다른 하나는 선포되는 말씀(설교)이다”라고 했습니다. 설교학(Homiletics) 원론에는 ‘설교란 단순히 무엇을 가르치는 것이나, 전하는 것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오직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성



오창학 목사
신촌교회 원로목사
전 영락교회 수석 부목사

경)을 전할 때 사용하는 가장 큰 방편'이라고 했습니다. 검사는 수사로, 판사는 재판으로, 변호사는 변호로, 의사는 진료로 말합니다. 그렇다면 목사는 설교로 말합니다. 목사에게 있어서 설교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한경직 목사님의 설교는 어떤 설교였을까요?

첫째, 성경 중심의 복음적 설교였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신·구약성경에 나타난 구속사적 메시지를 꿰뚫어서 복음의 내용인 구원을 적재적소에서 외치셨습니다. 성경 중심의 복음적 설교란 오직 예수 십자가, 희생, 회개와 사죄, 사망 권세 정복과 부활 승리, 승천과 재림 그리고 최후의 심판을 통한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보여주며 영생으로 인도하는 설교입니다. 설교에 있어서 성경에 관한 말보다 세상의 인문학적인 분야인 철학, 윤리·도덕 등 학문적인 말이 많으면 안 됩니다. 설교는 단순한 강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치 비빔밥에 고추장이나 조미료가 밥보다 더 많으면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디까지나 설교는 영의 양식인 성경이 핵심입니다. 다시 말하여 설교의 핵심과 기본 재료는 성경이어야 하고 그 외는 보조재료여야 합니다.

둘째, 언행이 일치하는 설교였습니다.

목사님은 강단에서 입으로 전하는 설교와 강단 아래에서 전하는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사랑, 희생, 용서, 봉사, 빛과 소금, 애국애족, 십자가, 천국과 지옥을 아무리 미사여구로 외쳐도 설교자의 언행이 일치하지 않으면 공간에 울려 퍼지는 소리는 될지 언정 진정한 설교는 아닙니다. 필자도 지난 41년간의 목회를 통하여 수많은 설교를 했는데 설교의 어려움



1983년 8월 산상기도회

은 설교 작성이나 전달방법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설교자의 설교와 행동에 괴리가 없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언제나 언행이 일치했습니다.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것이 1992년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일컬어지는 템플턴상(The Templeton Prize)을 수상한 목사님은 귀국 후 63빌딩 컨벤션홀에서 수상 축하 행사에서 국내외 귀빈과 하객, 기자들 앞에서 “저는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는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저는 신사참배한 사람입니다. 저는 죄를 많이 지어서 상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상금 100만 달러는 한 푼도 손대지 않고 전액을 북한 선교기금으로 헌금 하셨습니다. 참으로 온유 겸손하고 청렴결백하신 분이었습니다.

셋째, 누구에게나 공감과 감동을 주는 설교였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남녀노소, 지식의 유무,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와닿고 기억에 남은 것이었습니다. 마치 사도행전 2장에서 유대인들과 천하 각국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사도들의 설교를 각각 자기 나라 방언으로 듣는 것과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언젠

가 목사님께서 전국목회자연수회 강사로 오셔서 설교하셨는데, “설교란 아무리 많은 청중 앞에서 할지라도 한 사람 앞에서 하는 것처럼 개인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비록 한 사람을 앞에 놓고서 할지라도 수많은 청중 앞에서 하는 심정으로 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하신 것이 평생 기억에 남습니다. 한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니, 설교는 기억에 남아야 한다고도 하셨습니다. 또 설교는 불신자나 초신자가 들어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우면서 깊이가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넷째, 최선을 다하는 설교였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언제나 간절한 기도와 깊은 성경 연구, 묵상 등 모든 것을 종합하여 준비부터 최선을 다 하셨습니다. 목회자연수회 때 설교에 대해 하신 말씀이 또 있습니다. “강단에 설 때마다 오늘 나의 설교가 내 생애 마지막 설교다”라는 심정으로 설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종말론적 설교였습니다. 한국 교회에 한경직 목사님과 같은 분이 계속 출현하기를 기도합니다.

은퇴 후에도 아내와 함께 영락교회에서 주일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마다 종종 목사님 생각이 납니다.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이미 읽은 본문 말씀 중에서 ○○구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라고 시작하시는데 그 성경 한두 구절이 그날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하신 설교가 강단에서 전달될 때 음성의 고조와 강약 그리고 말씀의 속도와 제스처가 적절하게 안배된 단어 하나하나가 성도들의 심금을 울리고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지난날 목사님의 설교를 직접 들을 기회가 많았다는 것과 설교에 관한 목사님의 특강을 여러 번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은 크나큰 행운이었으며 필자의 목회에도 평생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수많은 양 떼에게 명설교로서 양질의 꼴을 공급하며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다가 23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가신 추양(秋陽) 한경직 목사님을 늘 기억하며 추모하고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만남**



2023년 한경직 목사 기념주간 기념예식 및 사진전

주최 : (사)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

기념예식

4월 14일(금) 오후 2시 본당

사진전

주 제: 목회자 한경직

날 짜: 4월 14일(금)~29일(토)

장 소: 한경직목사기념관 2층 전시실

한경직 목사가 목회 활동을 시작한 신의주제2교회에서의 목회활동과 영락교회에서의 본격적인 목회활동 모습을 연대별(1940년대~1970년대)로 볼 수 있다. 사진전 관람과 함께 기념엽서, 마그네틱 사진, 액자 등을 구입할 수 있다.



더 적극적으로 선교사 파송해야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소방대원에게 ‘살려서 돌아오라’, ‘살아서 돌아오라’고 간절히 바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갔으나 사람을 구해내지 못하고 젊은 소방대원까지 목숨을 잃어버리는 슬픈 소식을 접하기도 한다. 선교 현장으로 파송 나가는 선교사는 지옥 불을 향해 달려가는 영혼들을 영원한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인도해서 그들을 살리려고 간다. 그러나 선교사 본인이 장엄하게 순직할 때도 있다. 때로는 세계적인 질병으로 인해 선교사가 추방되거나 스스로 철수하거나 일시 귀국하기도 한다. 최근 코로나19는 세계적으로 유행한 질병이었다. 코로나19 이후에 선교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특히 한국 교회, 영락교회가 속해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PCK)와 영락교회의 선교가 ‘코로나 이후에 살아나는 선교’를 신중하고 진지하게 생각 해보고 싶다.

선교 현지화 지향하자

코로나19 때문에 일어난 변화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발전하면서 다양한 특징이 나타난다. 선교 현장도 변화의 물결을 타고 함께 질주하고 있다. 선교는 양적 선교와 질적 선교가 있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양적 선교에 조금 더 주력했다고 말할 수 있다. 예컨대, 파송 선교사의 숫자와 선교 후원비를 얼마나 많이 보내며 얼마나 선교비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느냐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다. 물의 수심이 깊을수록 물결은 조용하듯이 사람의 마음 깊이가 깊을수록 높은 인격을 가질 수 있으며, 그분의 믿음의 깊이와 무게는 그의 삶에서 나타난다. 배가 흔들릴수록 기본을 잡아야 하듯이 교회와 선교가 흔들릴수록 기본을 잡아야 한다. 선교는 숫자냐? 질이냐? 모든 것보다 먼저 본질을 굳게 잡아야 한다. 한국 교회는 급성장했기 때문에 뿌리가 약하고 이단이 많다. 한국선교의 급성장으



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지만, 성장 속도만큼이나 그 무너짐이 심하다는 비판도 받는다. 지금이라도 돈과 건물보다 사람을 키우는 선교, 현지인 중심 선교와 하나님 관점으로 나아가서 현지인 관점에서 현지인이 주도하는 선교 즉 선교 현지화를 현지 교회와 총회와 협력하여 선교하도록 지향하는 것이다.

온라인 교육·전도, 건물보다 사람 키우자

코로나19로 인한 변화는 선교의 침체와 더불어 지역에 따라 다양한 타격을 입혔다. 선교사들이 선교 현장에서 철수하거나 일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국내에서도 어떤 교회는 예배를 못 드리게 될 정도였으니 선교지는 더 심한 곳도 있었을 것이다. 한국은 코로나19 방역에도 비교적 성공한 나라로 세계가 인정할 정도였다. 그러나 전쟁 중에 큰 타격과 손상을 입은 우크라이나 장애인들이 국가적으로 지키는 사순절 영상을 보면서 다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된다. 지금도 세계 그늘진 곳에서 박해받는 교회와 그리스

도인들은 어렵고 힘들게 버티나가고 있다. 그래도 하나님의 선교는 중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친 코로나19 때문에 타격을 입고 일시 귀국했던 선교사들은 대부분 다시 선교 현장으로 복귀했다고 본다. 현장으로 복귀, 계속 또는 재파송의 경우는 이미 시작했던 사역들을 진행해야 하거나 재건해야 하므로 처음보다 더 많은 선교비가 필요한 분들도 있을 것이다. 아울러 전에는 선교 현장에 가서 직접 현지인들과 대면하여 함께 살면서 선교했던 방법을 비대면 선교로 전환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온라인으로 교육, 전도, 양육하는 다양한 선교 방법을 개발하여 건물보다 사람을 키우는 선교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해 온 한국 교회는 현재 일시 방문 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국내 체류 중인 선교사들을 최대한 많이 활용해서 선교 현장 연구

와 실습, 체험까지 할 수 있기를 바란다. 개인이나 작은 단체 또는 구역에서 선교사를 만나면 작은 후원이라도 해야 한다는 부담을 품기가 쉬운 데, 이로 인해 사소한 폐단이 초래될 수 있다. 선교비를 주는 것만으로 온전한 선교라고 할 수 없다. 한국 교회는 초기부터 너무 가난한 시절이라 헌금할 돈이 없어서 ‘날 연보’와 ‘성미’ 제도가 자생했다. ‘날 연보’는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헌금할 길을 찾지 못할 때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다. ‘성미’ 제도는 우리가 밥을 먹는다면 밥을 지을 때마다 쌀이나 보리쌀 한 손갈씩 ‘성미’를 모아 작은 자루에 넣어서 교회 가져와서 성미 걸이에 걸어 놓았다가 모아서 교역자의 식량에 보탬이나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어주기도 했었다. 성미는 오랫동안 한국 교회 헌금 제도로 최근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역사적으로 한국은 초기 선교사들을 핍박하고 추방하는 한편, 동시에 한국 교회는 해외에 선교사를 파송했다. 해방 후에 선교사를 한동안 못 보낸 적이 있었으나 한국전쟁 이후에 영락교회는 처음으로 해외 선교사를 태국에 파송했다. 그러나 영락교회의 문제는 더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선교사 파송에 힘쓰지 못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해외 선교뿐만 아니라 국내 전도 역시 뒷걸음질하고 후퇴하면서도 스스로 만족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지난 50년을 뒤돌아보면 우리 선배들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고 전국복음화, 군복음화, 학원복음화, 세계복음화 등과 국내외 곳곳에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했었는가를 세어 봐야 할 것이다. 지금의 영락교회는 우리 선배들의 신앙의 뿌리와 믿음의 유산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믿음의 뿌리 기억하자

코로나19 이후에 중단되고 죽었던 선교가 다시 살아

나야 한다.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중단되었던 선교는 코로나19가 끝났으니 이제 다시 돌아와야 한다. 일시적으로 귀국했던 선교사는 다시 선교 현장으로 돌아가서 그동안 무너져 가던 사역 현장을 다시 세워야 한다. 마치 아모스 선지자처럼 선교 현장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아모스 9:11), 새롭게 출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계속 나아가야 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아모스 9:15)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우리 부모들의 믿음의 뿌리를 한시라도 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 그 어른들이 계열 때 믿음으로 가정을 굳게 세워주셨고, 매일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기도골방’과 ‘기도수첩’, 자녀 손들과 교회를 위한 ‘기도심방’으로 매일 새벽 기도로 실천하시며 당신들의 삶의 기초를 다지셨다. 오늘도 우리는 바울 사도와 우리 부모같이 우리 마음을 다잡고 새롭게 다짐한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빌립보서 1:20) **만남**



이광순 목사
성동·광진교구
더라이프미션 이사장

해외선교 페이지입니다.
현지국가 사정으로
보안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블라인드 처리했습니다.

해외선교 페이지입니다.
현지국가 사정으로
보안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블라인드 처리했습니다.

해외선교 페이지입니다.
현지국가 사정으로
보안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블라인드 처리했습니다.

찬양·울동... 교회 가는 게 재밌어요



이번 성경학교는 제가 처음으로 한달 간 찬양과 기도로 준비한 남다른 성경학교입니다. 한 달 전부터 토요일마다 성경학교 주제곡인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와 '따라따라 갈래요' '예수님과 빠라빠빠' 같은 찬양을 연습했습니다. 제가 사는 일산에서 교회까지 1시간도 넘는 거리지만 목사님, 전도사님, 친구들과 연습하는 것이 너무 신났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조용히 왔다가 예배드리고 가는 아이였습니다. 반 친구들과도 이야기 한마디 못하고 집에 오는 날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교회에 가기 싫은 것은 아니지만 딱히 재미도 없었고 친구도 거의 없었습니다. 주일 아침에 일어나기도 귀찮고 교회 가기도 싫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교회 가기 즐거워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소년부 예배 시작 전에 찬양팀이 울동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같이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소에 춤추는 것을 좋아하지만 쑥스러워서 앞에 나갈 생각은 한 번도 못 했는데 작년 여름성경학교에서 울동으로 찬양하면서 너무 재미있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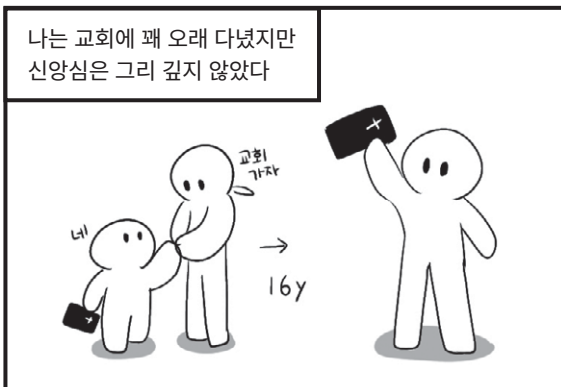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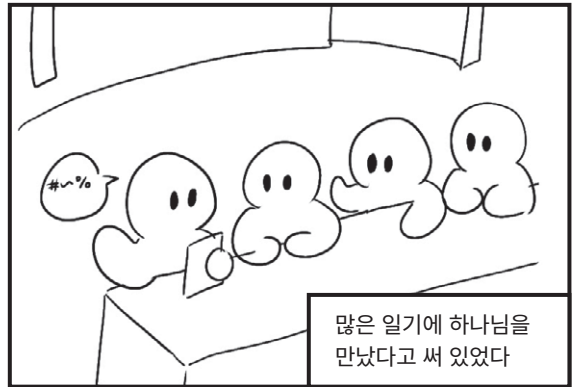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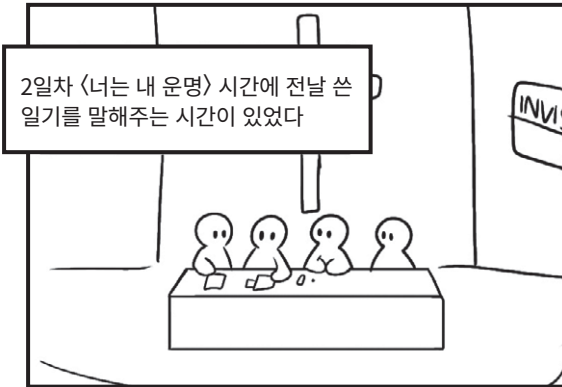
친구가 찬양팀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나도 할 수 있겠다 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도 안드리고 찬양팀을 신청했습니다. 이제는 교회 가는 것이 기대가 되고, 아침에 교회에 일찍 가서 예배를 준비 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매우 소심한 제가 무대에 선 것은 굉장한 도전이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성경학교 찬양을 준비하면서 성경학교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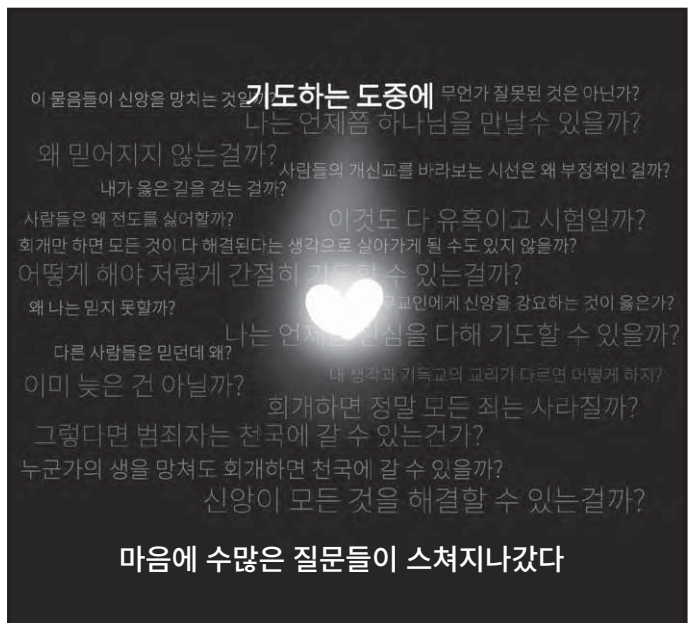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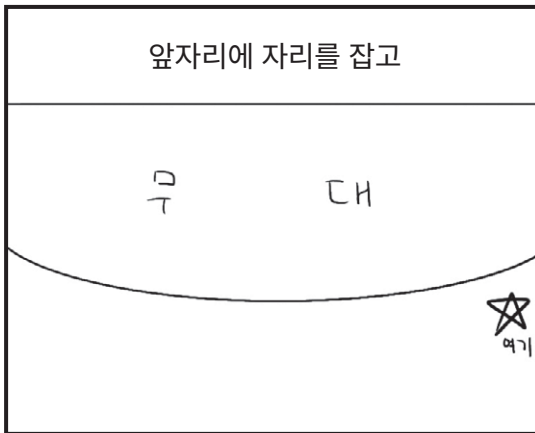
성경학교에서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준비하신 뮤지컬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 이야기였습니다. 뮤지컬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봉사관 앞 마당에 설치된 바이킹도 타고 4D카, 도전 요나탈출기 등으로 하루 종일 재밌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이킹은 놀이공원에 있는 것보다 작아서 안무서울 줄 알았는데 예상 밖으로 스릴 있었고, 4D카는 정말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아서 나도 모르게 웃고 있었습니다. 성서 학습 시간에는 다음 여름성경학교가 기대될 만큼 신났습니다. 다음엔 친구들을 초대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재미있는 활동을 하며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만남**



백지안
소년부

서로의 믿음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마음 안의 신앙은

정말 신앙 있는걸까?

마치 저 질문들에 대한 답을
다 들어야 굳건해 질 것 같았다

고민하던 나에게
목사님




모두 큰 원을 만들어서
서로를 축복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서로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찾아왔다




모두가 큰 원을 만들어서
서로를 축복하기 시작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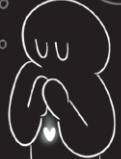


모두가
행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누군가는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이들의 앞날을
밝게 비추어 주세요



누군가는 모두의
앞날을 위해서

그 광경을 보며 느꼈다




신앙은 혼자 믿는 것이 아니라



전차윤
중등부

흔들리는 마음 붙잡아 준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락고등부 140대 학생회에서 친교 부장을 맡고 있는 김예은입니다.

공부할 시간에 봉사해야 하는 것도 부담스러웠고, 맡은 역할을 책임 있게 해낼 수 있을지 매우 두려웠습니다. 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할 수 없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때, 전도사님의 연락과 아빠의 권유로 용기를 얻어 학생회를 신청했던 것이 하나님에 관한 제 생각이 바뀌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처음 느껴진 것은 고등부 겨울수련회였습니다. 2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 동안 영락기도원에서 열리는 수련회를 위해 우리 학생회는 다양하게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번이 처음이다 보니 많이 긴장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들 처음 맞이하는 큰 행사 준비여서인지 모든 과정에서 서투름이 많아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고등학생이었기에 준비 기간으로 인해 공부할 시간이 줄어든다는 부담감이 대단히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평, 불만의 감정도 자주 나왔고, 말씀과 기도보다는 공부의 비중을 더 키우거나, 쉬는 시간이면 게임을 하거나 TV 시청 등에 더 치우치게 되었습니다. 학생회 활동 중에도 공부할 시간을 이렇게 보내도 되는지 의문을 품을 때도 있었고, 다른 친구와 이런 공감대를 함께 느끼기도 했습니다.

물론 학교에서나 다른 곳에서도 봉사활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모태신앙인 제게 있어서 학생회 또한 비슷한 감정이었을 것입니다.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허비해도 되는지, 이대로 봉사하는 것이 맞는지... 모태신앙인 저는 부모님에 의해 자연스럽게 교회로 나갔고, 교회는 학교에 가야 하는 것처럼 주일이면 당연히 가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말씀보다는 문제집을, 찬양보다는 가요를, 주일을 기다리는 것보다 드라마의 다음 회차를 기다리는 것이 저의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도바울처럼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임하신다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고,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자주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수련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집회는 저에게 빛이 되었고, 말씀은 제 마음에 화살처럼 날아와서 꽃혔습니다. 수련회 준비와 진행 등 학생회 활동으로 잠을 3시간도 못 잤기 때문에 처음 설교 시간에는 굉장히 피곤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에 대한 설교가 나왔을 때 저의 귀가 활짝 열렸고, 저의 눈은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야곱처럼 말 안 듣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찾아와



영락기도원에서 열린 고등부 수련회

주신다는 말씀이 왜 이렇게 감동적인지, 졸음은 순간 어디로 갔는지, 왜 갑자기 설교가 재미있어졌는지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말을 안 듣는 아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흔들렸던 옴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셨고,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도바울에게도 친히 찾아오셔서 마음의 변화를 주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셨다고 합니다. 마치 나를 향해 말씀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도바울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싶은 저에게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다”라며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은 기도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많이 흔들어 놓을 것이지만, 우리가 이겨낼 방법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꾸준히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고등학생인 저에게는 이런 설교가 쉽게 와 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저에게 진심으로 기도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는 하나님 만나는 것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하나님만을 믿고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나를 보고 계시고 나의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하신 만큼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진실로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놓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흔드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마음과 그 마음을 담아 기도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자 합니다. **만남**



김예은
고등부
학생회 친교부장

“부활의 증인이 되라” 성령님 부르심에 순종



지난 2월 23(금)~24(토) 이틀간 50주년 기념관 드림 홀에서 청년부 동계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저녁 10시에 시작하여 다음 날 오전 5시 30분까지 찬양, 말씀, 기도로 진행되는 수련회였습니다. 철야 여정이었지만, 'Calling' (부르심)이라는 이번 수련회 주제 표어처럼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자리에 불러주셨고, 저희는 그 부르심에 감사로 응답했습니다.

2월에 부회장을 맡은 후 처음으로 회장단 멤버들과 준비한 동계수련회였습니다. 역할을 분담하여 표어 주제 선정, 공간대여, 온·오프라인 홍보, 간식 및 야식 준비, 선물 준비를 담당했습니다. 부족했지만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주님의 은혜로 모두가 감당했습니다. 늘 섬김을 받기만 하던 자리에 있다가 섬기는 자리에 초대되어 보니 낯설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지만,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생각에 마음만은 뿌듯했습니다.



수련회 등록 데스크에서

청년부 오병훈 목사님의 설교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8)였습니다. 목사님은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지상명령이므로 이미 십자가와 부활의 증거가 우리에게는 확실히 있으니, 그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라는 현재형 말씀으로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증인이 되려는 삶에서 계속 넘어지는 제 모습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구하기보다 자신의 힘으로 증언하려 했던 것이 문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성령님에 대해 친근함보다는 다소 거리감을 두었고 성령 충만을 기도로 구하기보다는 다른 것들을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제자들과 사람들은 함께 계속 기도하며 마침내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 초대교회의 시초가 되고 사도행전을 써 내려갔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나라의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령님의 뜨겁고 놀라운 임재로 이적과 치유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1970~80년대 부흥의 시기에

이러한 성령의 임재를 자주 목도한 부모님 세대의 이야기를 들 때마다 놀랍고 부럽습니다. 동시에 지금은 성령의 불씨가 많이 사그라진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끼지만, 저희 모두를 증인으로 부르신 주님의 놀라운 섭리와 인도하심에 소망을 품고 나아갑니다.

특별히 50년 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을 사용하셔서 성령님이 뜨겁게 임재(1973년 여의도 집회)하신 그때의 감격과 은혜를 다시 돌아보며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뜨겁게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청년들이 성령님의 Calling(부름)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세워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만남**



은혜로 가득찬 ‘구덩이’



영락기도원에서 열린 수련회. 찬양과 기도가 이어졌다.

영락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지 얼마 되지 않지만 여러 역할을 통해 섬길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번에 호산나찬양대가 기도원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받은 것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처음 수련회를 가고자 했을 때는 이렇게 큰 행사가 될 줄 몰랐습니다. 처음엔 저희끼리 모여 맛있는 것을 나눠 먹고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며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갖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리 생각했던 장소가 예약이 꼭 찻다고 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영락기도원에서 수련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김운성 위임목사님과 여러 지도위원들께서 저희 수련회에 더 관심을 두시고 도움의 손길을 주셨습니다. 비로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해주신 길이었다는 생각이 들

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호산나찬양대가 신앙적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때와 장소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지만 저희가 다른 방향으로 준비를 하다 보니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이었지요.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기도하며 다시 준비했습니다.

수련회를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고민하던 중 지난해 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작년에 매일 어디 나가지도 않고 집에만 누워 지내고 방황하며 보냈습니다. 11월 쯤에 금요기도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 사랑에 보답해야겠다는 심정으로 지금까지도 금요기도회에 매주 참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를 호산나찬양대도 느끼면 좋을 것 같아 수련회에 이 형식



을 가져와 진행했습니다. 찬양대 서기를 맡은 뒤 첫 행사가 이번 수련회였기 때문에, 호산나 대원 모두 수련회에 참여하여 은혜받는 시간이 되길 매일 기도했습니다.

호산나찬양대를 지도하는 박용준 목사님께서 저희를 위해 수련회에 가져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23~24절이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채색옷을 벗겨버리고 빈 구덩이에 던진 얘기입니다. 이 설교를 통해 저는 지난 과거를 회상해 보았습니다.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에 남들의 관심과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서 이런 일상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이었고 시간이 지나 얼마 전까지도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요셉이 빠진 빈 구덩이처럼 너무나 외롭고 허망했습니다. 이렇게 쓸쓸한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저에게 영락교회를 알게 하시고 금요기도회로 이끌어 주시고, 서기라는 직책도 맡겨 주셨습니다. 제가 방황하며 보낸 시간은 빈 구덩이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구덩이였음을 수련회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끝난 후에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1년이라는 시간을 호산나찬양대와 함께 하나님을 섬겼지만, 적응하기에 바빠 호산나를 위한 기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저에게 수련회라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기회를 살려 1년 동안 하지

못했던 기도들을 다 하겠다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더니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마음의 짐들이 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아직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했던 그 날의 장면이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무르익은 분위기 속에 기도회는 끝이 났고 다음 날 아침 위임목사님의 오이코스 말씀을 듣고 나눈 뒤에 기도로 수련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수련회를 다녀오기 전과 후를 비교해보면 호산나 대원과 더욱 돈독해지고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으로 들어선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제 구덩이가 앞으로도 많은 인연과 하나님의 큰 역사로 가득 찰 것을 믿습니다. 여름에도 수련회를 계획해보려고 합니다. 그때에는 찬양대가 더욱 부흥하여 보다 많은 대원이 수련회에 참여하길 기도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이 모든 일을 감사드립니다. **만남**



이사무엘 성도
호산나찬양대 서기



장애인, 주의 보내심을 받은 ‘한 사람’

얼마 전,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 변호사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꽤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동안 대중매체에서 장애인을 다룰 때, 지체 장애인이 신체적 결함을 극복하여 성공한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전개하거나, 고기능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들의 천재성만 부각시키는 데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드라마에서는 장애인 주변인의 모습에도 주목했습니다. 장애인의 가족, 친구, 이웃 등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른 반응을 보여 주면서 장애인을 향한 태도가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장애인을 불쌍하고 안쓰럽게 여기거나, 그 반대로 혐오스럽게 여기는 현대인들에게 새로운 인식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장애인을 대하는 비장애인의 태도 역시 ‘자폐 스펙트럼’이라는 명칭만큼이나 다양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지요.

성경에도 장애에 대한 편협한 이해의 배경 속에서 기록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 총회가 제정한 장애인 주일(2023년 기준 4월 16일)을 맞아 요한복음 9장을 통

해 장애인을 향한 예수님의 태도는 당시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지, 또한 장애인을 향한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은 예수님의 시각 장애인의 치유 기적만을 단선적으로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장에는 시각 장애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부모니이까”(2절)하며 묻는 제자들과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함”(3절)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 장애의 이유를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고자 하는 세태를 꼬집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것을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당시의 사회적 통념이었습니다. 제자들만 특별히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시대적 한계 안에서 누구나 지닐 수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누군가의 죄’라고 단정하는 대신에 장애인을 하나님의 쓰임받는 ‘한 사람’으로 여기십니다.

우선 예수님은 그를 실로암 연못으로 보냅니다. 요한복음 9장 전체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실로암으로 보낸 이유가 단순히 효험이 있는 물가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를 한 사람의 제자로 삼기 위해 보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4절)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보내심’이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9장은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시각 장애인이 점진적으로 예수님을 인식하며, 제자가 되는 과정을 묘사하고



“장애를 극복하라”고 말하지 않아야 그 존재만으로 온전하다고 인식해야

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시각 장애인은 처음 예수님에 대해 설명할 때 “예수라 하는 그 사람”(11절)이라고 말합니다. 얼마 뒤, 그는 예수님을 “선지자”(17절)로, “하나님께서로부터 오신 분”(33절)으로, 또한 마지막으로 예수님 앞에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38절)라고 고백하면서 본 장이 마무리 됩니다. 결론적으로 본문의 시각 장애인도 성경 내의 다른 인물들처럼 구원의 수혜자로서 ‘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9장은 시각 장애인의 이야기를 다루며, ‘보게 되었다’라는 뜻을 두 가지의 의미로 설명합니다. 먼저는 시각적인 의미에서의 ‘본다’는 개념이고, 또 하나는 본질을 파악한다는 의미에서의 ‘본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은 시각 장애인이 시각적으로 예수님을 볼 뿐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또한 성경의 독자로 하여금 역설적으로 시각 장애인을 보내신 예수님을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9장을 읽은 그리스도인들은 장애인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가장 먼저, 장애인을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한 사람’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한 사람이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떠올려야 합니다. 또, 장애인을 향해 “죄가 많아서…”라는 말을 삼가야 합니다. 장애의 원인과 경로는 다양합니다. 장애를 죄의 결과로만 인식하는 것은 1세기 유대인들의 과오를 답습하는 것이고, 장애인과 그 가정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들에게 “장애를 극복하라”고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극복

이라는 단어의 기저에는 현재의 상태를 불완전한 상태로 여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설픈 온정주의로 장애인들을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그 존재만으로도 온전하다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장애인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사회의 비주류로 밀려납니다. 비주류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비주류의 삶은 너무나도 쉽게 자신의 생각과 의견이 무시되는 삶입니다. 쉽게 말해, 아무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문을 두드린지 몇십 년이 지나야만 겨우 쪽문 하나가 열리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지요.

그러나 장애인을 ‘한 사람’의 존재로 보게 되면, 그 사람도 나와 마찬가지로 이 땅에 태어나 온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기도, 또 지닌 사랑을 마음껏 주기도 하는 ‘한 사람’으로 대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너 자신 같이 사랑하라”(누가복음 10:27)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틀림없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앞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고자 하는 사랑보다 대상자가 받고자 하는 사랑을 건네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장애인을 ‘한 사람’으로 대해주셨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장애인을 ‘한 사람’으로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남**



하나님 말씀에 깊이 감동한 사랑부 서울식물원 나들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여호수아 23:5)

저희 사랑부는 ‘말씀으로 위풍당당’이라는 주제로 지난 2월 25~26일 이틀간 봄맞이 성경학교를 열었습니다. 몇 주간 교역자님, 지도부, 선생님을 비롯하여 학부모와 학생까지 모두 합심하여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특히 이번 성경학교는 야외활동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준비와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서울식물원>에서 말씀과 관련된 각종 미션을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갖고자 했습니다. 지체 장애 등을 지닌 친구들이 출석하는 사랑부는 언제나 야외활동이 큰 도전입니다. 대중교통 이동부터 시작하여 낯선 공간에서의 활동까지,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말씀에 의지하여 성경학교를 준비했습니다.

첫날 여는 예배에서부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학교 전날까지만 해도 어떻게 하면 성경학교를 잘 마칠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우리 학생들이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을지 걱정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는 예배를 통해 모든 걱정을 없애주셨습니다. 모든 걱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니 오직 기쁨과 사랑만이 남았습니다.

예배 후 <서울식물원>으로 출발하기 전까지 각 마을이 어떻게 미션을 수행할 것인지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을별로 스무 개의 말씀 구절에 맞는 사진을 찍는 미션을 안고 기대와 설렘 속에 출발했습니다. 가장 큰 걱정이었던 대중교통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내리는 역마다 역무원들이 나오셔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사랑부 학생들도 서로 도와주고 챙겨주면서 이동했는데 그 모습이 오히려 제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서울식물원에서의 활동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감동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말씀과 관련된 미션을 하나하나 수행하면서 자연스럽게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우리는 모두 기쁨과 사랑이 넘쳐났습니다. 미션을 수행하는 내내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사랑부 학생들이 서로 사랑으로 배려하는 모습에서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





봄맞이 성경학교가 진행된 서울식물원 나들이

었습니다. 처음 야외활동을 준비할 때 가졌던 걱정과는 달리 아무 사고 없이 활동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교사와 학생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성경학교는 시작과 마침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더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달는 예배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예배 인도와 기도, 찬양까지 맡아 진행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짐을 느꼈습니다. 특히 한 단어 한 단어 힘주어가며 기도하는 모습에서 우리 사랑부 학생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런 사랑부 학생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제게도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저는 교사로서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 사랑부 학생들이 은혜받을 수 있도록 도움 주고자 했지만, 오히려 제가 은혜받는 시간이었습니

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학생들의 모습을 통해 저의 신앙생활도 다시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대부분은 사랑부를 잘 알고 계시지만, 아직 모르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사랑부는 이름과 같이 사랑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시선으로는 멀리 떨어져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사랑부 교역자와 교사들은 우리 학생들이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돕고 있습니다.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께, 그리고 세상을 향해 말씀따라 위풍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많은 사랑과 관심을 주시며, 저희 사랑부가 사랑으로 더욱 가득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만남**

사랑부엔 졸업이 없습니다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하는 사랑부는 발달장애인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부서이다. 사랑부 학생들은 각각 사회적, 언어, 운동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다. 흔히 알려져 있는 자폐스펙트럼장애, 다운증후군 등 증상도 경증에서 중증까지 다양한 학생들이 모여 있다. 졸업이 없는 사랑부에는 현재 1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의 학생이 있고 개인사정으로 잠시 쉬는 학생들 외에 61명의 학생이 함께하고 있다. 사랑부는 교사와 학생 1:1 교육이 원칙이지만, 현재 비담임교사를 포함하여 59명으로 일부 2:1 교육을 하고있는 상황이다. **만남**



1998년 한경직 목사님과 함께

2007년 장애인주일 남산에서



2005년 봄맞이성경학교·음악치료



2007년 일본동경비전트립



2011년 총회 발달장애인부 연합체육대회

2012년 추수감사연극예배

2015년 창립17주년 허강행사



2020년 코로나 온라인 가정예배



2021년 부활절활동

확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삶의 불확실성을 받아들일
용기를 얻게 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계획적으로 움직이고 저 자신의 미래를 통제하고자 하는 성향이 강했습니다. 알 수 없는 미래와 그로 인한 불안감만큼 불편한 것은 없었거든요. 저의 이러한 성향은 대학 진학을 앞두고 더 뚜렷해졌습니다. 여기저기 입시설명회를 다니며 자문받으면서 목표한 대학을 어떻게 해야 갈 수 있는지 알기 위해 정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스트레스받을 때도 많이 있었지만, 그렇게 노력해야 불안감을 줄일 수 있었기에 그러한 삶의 방식을 쉽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스트레스받으며 열심히 진학을 준비했는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포항의 한 대학으로 가게 되었고, 저의 삶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온 힘든 기억 때문이라도 반드시 피하고 싶었던 사역자의 길을 영락교회에서 걷고 있습니다. 나름 계획적으로 철저히 준비하여 목적을 향해 달려왔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의 삶의 궤적을 돌아보는 중에, 인생의 불확실성을 요약하고 있는 전도서의 한 구절이 문득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전도서 9:11)

우리는 흔히 어떠한 일에 재능이 있거나, 철저한 준비와 꾸준한 노력을 뒷받침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실제로 수많은 자기개발서, 또는 인생 멘토라 하는 이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사람들은 자기 삶을 미리 설계하여 자기 힘으로 인생을 개척하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는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것이 인생이라는 점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인생의 성공 가도를 달리던 이가 한순간의 실수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말미암아 추락하게 되는 뉴스를 봐도 그렇습니다. 영원한 성공과 확실한 행복은 마치 그림의 떡인 것처럼 닿을 수 없도록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다면 도대체 누가 나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을까요? 확실한 행복이란 이룰 수 없는 꿈과 같은 것일까요? 그 답은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힘만으로는 거머쥘 수 없는 행복,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우리는 복잡하기만 한 삶의 불확실성을 받아들이고 불안을 극복할 용기를 얻게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9)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말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이 포기하지 않은 인간적 욕망을 하나님이 어떻게든 대신 이루어 주실 것이라 기대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저 또한 그러한 왜곡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설정한 목표를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전도자가 말하는 깨달음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전도서 3:12~13)

우리는 뭔가 철저한 계획을 세워 그럴듯한 성과를 내야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행복은 이미 우리 곁에 가까이 있습니다. 맛있는 밥을 먹고,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일을 하며 소소한 기쁨을 누리는 것들이 사실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자 행복의 자리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제나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준비된 복을 넘치게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확실하지 않은 것들을 쫓느라 당장 나에게 주어진 행복을 놓치지 말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가며 그분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영락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소망합니다. **만남**



대각선으로 나뉜 화면, 무한과 유한을 연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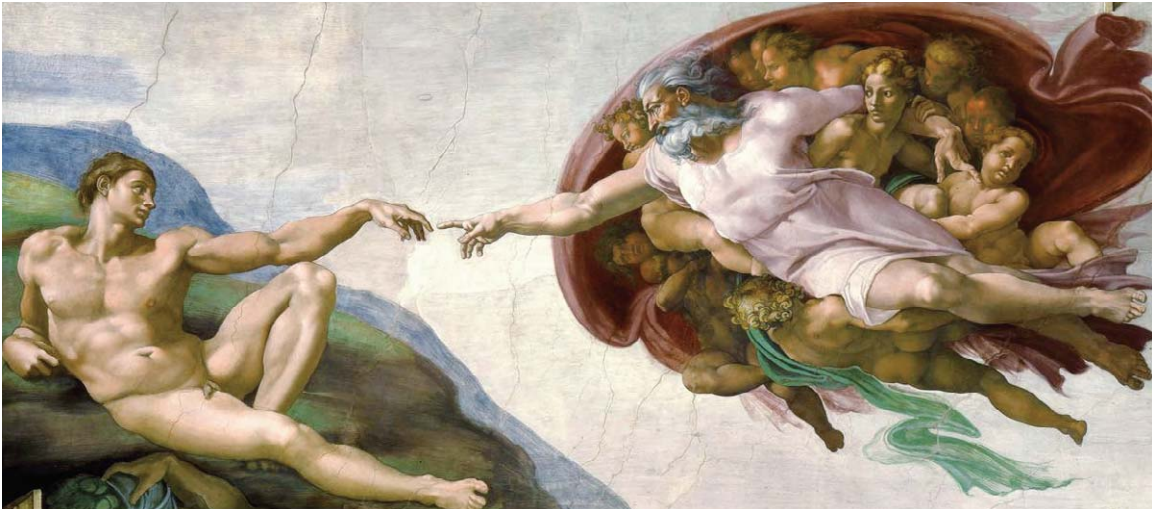


그림1 시스티나 천장화 중 〈아담의 창조〉부분. 미켈란젤로, 시스티나 성당, 바티칸.

르네상스 미술의 거장 미켈란젤로는 전등도 없던 그 시절, 노년의 나이에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 천장을 빈틈없이 성경의 내용으로 채웠습니다. 1508년 시작해 4년 만에 완성한 〈시스티나 천장화〉는 궁륭을 이룬 건축구조에 따라 영역을 나누어 중앙부에 천지창조와 노아의 대홍수 등 구역성서 그림 9가지를 배치했어요.

극적인 아담의 창조 순간

미켈란젤로는 르네상스인답게 중세의 기독교 신앙을 바

탕으로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과 함께 당시에 새롭게 대두된 인간의 휴머니즘을 조화시켜 하나님의 창조물, 인간을 경이롭게 예술적으로 표현한 것이 매우 탁월합니다.

그림1 〈아담의 창조〉는 천장화 가운데서도 가장 잘 알려진 작품입니다. 이 그림에서 수학적 요소를 볼까요? 미켈란젤로는 화면을 대각선으로 나누어 감상자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합니다. 오른쪽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데, 바람에 휘날리는 망토가 그것을 잘 표현하고 있지요. 왼쪽의 아담은 방금 창조된 땅 위의 사람으로, 하늘과 땅으로 공간이 나뉩니다.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시며 방금 창조하신 인간 몸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려는 찰나를 미켈란젤로는 드라마틱하게 표현했어요. 최초의 인간에게 내민 하나님의 힘 있는 손끝과 피조물 아담이 반응하는 부드러운 손끝은 무한과 유한의 두 공간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



계영희 집사
안양·수원교구
고신대 명예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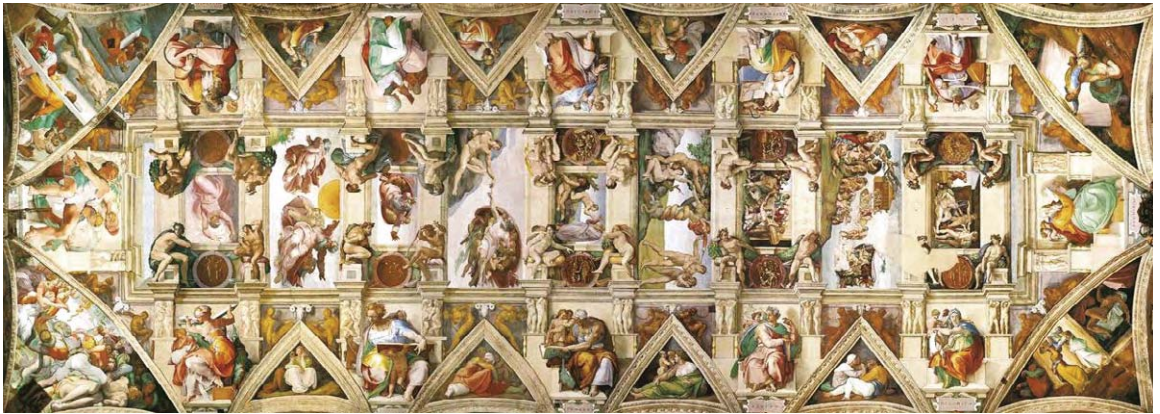


그림2 <시스티나 천장화> 전체

님의 전지전능한 역사의 시작이 출발하는 순간! 손끝이 닿을 듯 말 듯 긴장감 있게 표현하여 그림을 바라보는 감상자는 창조의 신비로운 현장에 있는 것처럼 생생한 실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18)

하나님의 망토 속에서 왼쪽 팔에 안긴 여인은 하와입니다. 아직 죄를 짓지 않은 순박한 하나님의 창조물이지요. 아담을 잠들게 한 후 하나님은 그의 갈빗대를 하나 뽑아 최초의 완벽한 인간인 아름다운 여성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표정은 선하고 자애로우며 창조자답게 역동적인 에너지의 분출을 느끼게 합니다.

천장화 전체(그림2)를 봅시다. 제단부에 구약 성경의 <천지창조>부터 <노아의 홍수>, <술 취한 노아>를 그렸고, 천장의 측면과 벽이 만나는 궁륭(穹窿)의 사각형 벽에는 에스겔, 이사야 등 구약의 일곱 예언자와 델포이의 무녀를 비롯하여 그리스, 로마의 이교 예언자인 무녀 다섯 명을 그렸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각 인물의 크기를 실제

사람의 크기보다 크게 그려서 감상자가 회화의 역동성을 느끼며 그림을 볼 때 압도당하도록 한 것이지요.

미켈란젤로는 이 프로젝트를 하는 4년 동안 예비 스케치 300여 점을 그리고, 물감 개는 사람 외에는 도움을 마다하고 성당 문을 잠그고 집중하면서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림을 하루 종일 그리며 몸을 너무 혹사하여 저녁에 침대에 누울 때는 다리가 심하게 부어 가죽 부츠를 벗길 때는 살점이 떨어질까봐 구두를 잘라서 벗겼다고 하는군요. 굳건한 신앙심이 아니었다면, 인간이 홀로 감당하기에는 실로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그림의 요지는 어둠에서 빛으로, 물질에서 영혼으로 해방되는 과정입니다. 신플라톤주의적 해석으로 구약 성경과 그리스, 로마의 예언자들을 모두 등장시킨 것은 궁극적으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견해는 인간 세계와 신의 계시 사이의 관계를 그리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여기까지 독자들은 16세기 르네상스의 거장 미켈란젤로의 그림을 감상한 것인데 1, 2월 『만남』에서 언급했듯이 중세의 단조로운 화풍에서 벗어나 사실적이고 생동감 있는 그림이 그려진 것은 화가들의 기하학 연구로 원근법이 완벽하게 사용된 증거입니다.



그림3 <아담과 이브> 목판, 뒤러, 1507년

그림3의 <아담과 이브>는 독일 화가 알브레흐트 뒤러의 작품입니다. 미켈란젤로의 <시스티나 천장화>와 같은 시기 작품입니다. 그는 인체를 아름답게 표현하기 위해 매우 철저하게 기하학 연구를 했습니다. 좌표평면 같은 격자틀을 놓고 그림을 그리면서 입체의 묘사와 입면도를 연구하여 오늘날 건축과 공학에 활용되는 화법기하학(法幾何學)의 발전을 이끌었고, 결과적으로 사영기하학*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 화가입니다. 뒤러의 인물묘사는 기하학적 비례에 맞게 8등신으로 정교하게 표현되었어요. 아담은 남성미가 물씬 풍기는 근육질로 표현되고, 하와는 부드러운 곡선의 유려한 모습입니다. 뱀의 유혹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선악과를 따서 하와는 방금 먹은 듯 요염한 모습으로 아담에게 먹을 것을 요청하듯 쳐다봅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들고 범죄 하기 직전 인간의 모습처럼 약간의 두려움이 보입니다. 이는 그림4와 비교



그림4 성서의 삽화 <에덴동산의 아담과 이브>, 12세기

해볼 때 분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12세기 작품인 이 그림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 갈비뼈로 하와를 창조하는 순간을 그린 것인데, 르네상스의 그림과 비교해보면 격세지감을 느낄 수가 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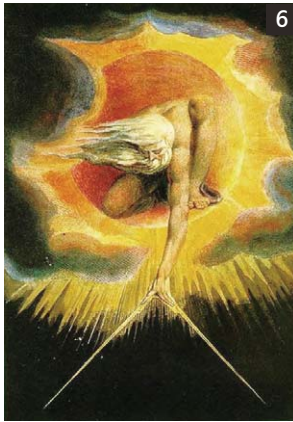
중세와 르네상스의 그림을 비교하면 매우 극명하게 세계관의 차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세계관이 수학을 바꾸어 놓으며, 수학적 사고의 변화가 화풍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지요. 유럽에서는 6~11세기를 암흑시대라고 평합니다. 이유는 야만족의 침입으로 찬란했던 헬레니즘 문명과 로마 문명이 와해되면서 수학과 과학이 침체의 늪으로 빠졌기 때문이지요. 흔히 세계사에서 중세 유럽의 정신세계는 기독교가 지배적인 봉건사회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은 기독교적 사고와 세속적인 사고가 매우 이중적으로 표현되었던 시기입니다. 실례로, 그리스 미술이 기하학적인 것은 기하학적 사고가 정신세계를 지배했기 때문이고, 중세 미술은 기독교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으로 이원화된 것이 특징입니다. 중세 수학은 수도원 수학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수도사들에 의해 수도원을 중심으로 연구되었고, 수학사적으로 별 의미 없는 것이에요. 5~6세기경 성직자이며 중세 대표적인 수학자 보에티우스조차 수를 삼위일체 사상에 근거하여 수를 3으로 분류했습니다. 자연수는 완비수, 과잉수, 부족수, 소수는 소수, 호소수, 비소수 등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 시기 그림으로 수빈나 성서의 삽화, 그림5 <아브라함의 후손>을 볼까요. 상징적인 성경의 내용을 표현하자니

* 사영기하학(Projective Geometry); 르네상스 화가들의 연구로 촉진된 새로운 기하학으로 무한원점, 무한원직선 등 무한의 개념이 포함된 기하학으로 19세기에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최근에는 애니메이션 연구에 근간을 이루는 기하학이다.



5



6



7

그림5 <아브라함의 후손> 수빈나 성서의 삽화
그림6 윌리엄 블레이크 <태고의 날>
그림7 <생명의 나무> 클림트

미켈란젤로와 뒤러는 기하학적 구도·원근법·8등신 도입 윌리엄 블레이크의 하나님은 컴퍼스로 세상 만들어

실물과의 유사성과 현실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림4 <에덴동산의 아담과 이브>는 매우 무미건조하고 현실감, 생동감을 전혀 느낄 수 없습니다. 이브를 유혹했던 뱀의 모습은 마치 지렁이 같고 아담과 이브, 하나님의 표정에서 주는 이미지와 느낌은 미켈란젤로의 작품과 큰 대조를 이룹니다. 바로 수학의 정신이 사라진 결과입니다. 게르만족이 침략한 후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학문을 연구하고 보전하는 수도원은 산으로 옮겨 갔어요. 진리처럼 탐구하며 신봉했던 그리스의 유클리드기하학은 사라졌고 오직 수도사들에 의해 성서 연구만이 주류를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로마 시대 주산이었던 에버커스도 사라지고 손가락셈으로 산술을 계산했답니다. 현재까지 남아 있는 손가락셈의 흔적은 경매장에서 주고받는 모션이라고 합니다.

시대사조에 따른 창세기의 해석

17세기는 영국의 뉴턴이 미분적분학을 창안하면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비롯하여 과학적 업적이 봇물처럼 터집니다. 18세기는 좀 더 과학적으로 인간과 세계를 이해하려는 계몽주의 시대이지요. 그림6은 이 시기 활동한 영국의 신비주의 화가 윌리엄 블레이크(1757~1827)의 <태고

의 날(옛적부터 계신 이)>입니다. 블레이크가 표현한 하나님은 컴퍼스로 세상을 과학적으로 창조하는 신입니다.

그림7은 오스트리아의 독창적인 화가 구스타프 클림트의 <생명나무>입니다. 특징은 기하학적이고 지적인 추상 양식이지요. 특히 이탈리아 라벤나의 모자이크와 장식적인 패턴, 금을 사용하여 독특한 양식을 발전시켰어요. 클림트는 명성과 부를 누렸지만, 명성과 다르게 그의 사생활은 매우 난잡하였고 사생아도 많이 양산했어요. 필자는 클림트가 그의 현실적인 삶과 다르게 한편으로는 경건한 기독교 정신을 회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림의 감상자는 각자 자기의 안경으로 해석하는 법이지요. 프랑스의 폴 발레리의 말처럼 그도 유럽인으로서 서구의 정신을 은연중에 표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명나무는 그림 중앙에 버티고 있으며 아담과 하와는 몸도 하나요, 영혼도 하나이듯이 부둥켜안고 있습니다. 왼쪽은 뱀을 상징적으로 간악한 여인의 모습으로 얼굴을 삐죽 내밀고 있군요. 이처럼 성경의 창세기 내용이 시대사조에 따라 매우 극명하게 다른 모습으로 표현된 것은 당시 세계관의 반영이며 그 주된 핵심은 수학의 발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학은 문화의 핵이기 때문이지요. **만남**

빈혈, 다른 질병 신호일 수도

빈혈은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보편적인 문제다. 흔히 어지럼증이 있다면 ‘혹시 빈혈이 있나?’라고 의심한다. 빈혈이 우리를 피로하고 무기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물론 어지럼증이 있다고 모두 빈혈이 있는 것은 아니며, 어지럼증을 일으키는 원인은 다양하다. 하지만 그러한 원인 질환 중 빈혈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므로 어지럼증이 있으면 빈혈을 우선하여 생각할 수 있다. 빈혈은 원인에 따라 종류가 다르며, 다양한 증상이 동반되는데, 이들 증상이 일시적일 수도, 장기간 지속될 수도 있다. 특히 여성이나 만성질환을 앓는 사람에게서 발생 가능성이 크다. 최근에는 노인성 빈혈이 증가하고, 젊은 층에서는 무리한 다이어트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1. 빈혈의 정의

빈혈은 혈액 내 세포인 적혈구의 숫자 또는 적혈구 내의 혈색소(헤모글로빈)가 정상치보다 감소한 상태이다. 혈액 내의 적혈구는 우리 몸의 여러 기관에 필요한 산소를 운반 및 공급하는데, 적혈구가 부족하면 조직으로 산소가 운반되지 않아 조직의 저산소혈증이 발생하게 된다. 만약 빈혈이 있다면 우리 몸은 건강한 적혈구를 잘 생산해내지 못하거나, 적혈구가 너무 많이 손실·파괴되어 적혈구가 만들어지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빈혈을 <표>의 기준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2. 빈혈의 원인 및 종류

① 철결핍빈혈

혈색소의 주성분인 철분 부족으로 발생하는 흔한 빈혈로

서 전 세계 인구의 약 1/3에서 관찰되고, 선진국보다 후진국에서 유병률이 높으며 남성보다 여성이 많고, 소아 청소년에게서도 흔하게 관찰된다. 인체 내 골수는 혈색소를 만드는 철분이 필요한데 이때 철분이 충분하지 않으면 인체는 적혈구에 필요한 혈색소를 충분히 생산할 수 없으므로 철결핍성 빈혈을 일으키게 된다. 위장관출혈과 여성의 생리 등으로 인한 실혈로 인해서도 발생한다.

② 거대적혈모구빈혈

철분과 더불어 인체 내에서 건강한 적혈구를 충분히 생성하기 위해서는 적혈구 DNA를 합성하는 엽산과 비타민 B12가 필요하다. 엽산과 비타민 B12가 부족하거나 영양소 흡수에 영향을 주는 소화기 질환을 앓는 사람은 이러한 비타민 결핍성 빈혈에 걸리기 쉬운데, 이를 거대적혈모구빈혈이라 한다.

③ 만성질환으로 인한 빈혈

류머티즘 관절염, 크론씨병, 감염, 악성종양 등과 같은 전신 염증을 동반하는 여러 질환과 연관되어 생긴다. 철분이 충분해도 만성염증질환에 의한 염증 물질 과다로 인해 조혈 부진으로 빈혈을 초래하기도 하고, 신장질환이나 악성종양으로 인해 적혈구 조혈을 촉진하는 적혈구



〈표〉 혈색소 농도에 따른 빈혈의 진단 기준(WHO)

(단위: g/dL)

연령	경도 빈혈	중등도 빈혈	중증 빈혈
6~59개월	10.0~10.9	7.0~9.9	<7.0
5~11세	11.0~11.4	8.0~10.9	<8.0
12~14세	11.0~11.9	8.0~10.9	<8.0
성인여성(15세 이상)	11.0~11.9	8.0~10.9	<8.0
임산부	10.0~10.9	7.0~9.9	<7.0
성인남성(15세 이상)	11.0~12.9	8.0~10.9	<8.0

생성 인자가 부족해서 빈혈이 생기는 일도 있다. 이들을 모두 만성질환빈혈이라 한다.

④ 재생불량빈혈

골수 부전의 대표적 질환으로, 골수의 조혈 조직이 지방 조직으로 대체되고, 말초 혈액 내에는 혈액의 세 가지 세포(적혈구, 백혈구, 혈소판)가 모두 감소하는 범혈구감소증을 특징으로 하는 조혈기능장애질환이다. 동양인이 서구에 비해 2~3배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

⑤ 혈액암 또는 골수침범질환에 의한 경우

백혈병과 골수이형성증후군 같은 다양한 혈액암 질환이 골수에서 조혈생성과정에 영향을 미쳐 빈혈을 일으킬 수 있다. 혈액과 골수의 다른 암(다발성 골수종, 골수증식성질환, 림프종 등)도 골수를 침범하여 빈혈을 일으킬 수 있다.

⑥ 용혈빈혈

적혈구가 골수에서 만들어져서 보충되는 속도보다 더 빨리 적혈구가 파괴될 때 생긴다. 특정 혈액 질환, 감염증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는 몇몇 항생제와 같은 약물은 적

혈구의 파괴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자가면역질환 등은 인체 내에서 적혈구에 대한 항체를 생성하여 초기에 적혈구를 파괴할 수도 있다. 용혈성빈혈은 피부를 노랗게 보이게 하고(황달), 비장의 비대를 초래할 수 있다.

⑦ 기타 종류의 빈혈

겸상적혈구빈혈, 지중해빈혈증후군 등 유전적 결함이 있는 혈색소에 의한 드문 형태의 빈혈이 있다. 국내에서는 드문 질환이나 많은 외국인의 유입으로 인해 국내 진료실에서도 간혹 이러한 빈혈 환자들을 접할 수 있다.

2. 빈혈의 증상

경미한 빈혈은 증상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빈혈이 심해지면서 증상이 점차 나타나는데 제일 흔한 증세는 피로감이다. 그 밖의 다른 증상으로는 쇠약감, 창백한 피부, 빠르거나 불규칙적 심장박동, 숨이 참, 가슴 통증, 어지러움, 팔다리의 저린 감각이나 차가움, 두통 등이 있다.

3. 빈혈의 진단 및 검사

병원에서는 빈혈이 의심되는 환자의 병력, 신체검사와 혈액 검사를 통해 진단한다. 혈액 내 적혈구와 혈색소의



* 빈혈 환자를 위한 식사 가이드

- ① 단백질, 철분이 많이 든 식품 (달걀, 육류, 생선, 우유, 두부) 섭취
- ② 소의 간, 녹황색 채소, 미역, 완두콩, 강낭콩 섭취
- ③ 신선한 채소, 과일 섭취
- ④ 식사 도중이나 직후에 차 또는 커피, 청량음료 삼가

수치를 측정하고 혈액 중 일부는 적혈구의 크기, 모양, 색을 관찰하기 위해 현미경 검사를 한다. 만약 빈혈로 진단이 되면 더 자세한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추가로 검사(위대장내시경, 산부인과 검진, 골수검사 등)하기도 한다.

4. 빈혈의 치료 및 예방

빈혈 치료는 원인에 따라 달라지므로 어떤 치료가 필요인지 주치의와 상담해야 한다. 대부분의 철결핍빈혈은 보통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이지만, 치료 후 적혈구의 정상 회복까지는 수주에서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으므로 증상이 좋아진다 해도 끝까지 확실하게 치료해야 한다. 다음은 철결핍빈혈의 경우에 도움이 되는 사항들이다.

- ① 철결핍빈혈은 철분이 많이 함유된 음식의 섭취만으로는 절대 치료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철분제를 복용해야 한다. 철분제는 식전에 비타민 C(예: 과일주스)와 함께 복용하면 흡수가 더 잘된다(속이 불편해서 식전에 먹기 부담되면 식후에 바로 복용).
- ② 우유, 커피, 감과 같은 음식을 철분제와 함께 먹으면 흡수를 방해한다(우유 자체는 철분이 함유되어 있으나, 철분제와 우유를 함께 먹으면 우유가 철분의 흡수를 방해함).

- ③ 철분제는 최소한 6개월간 복용 권장하며, 6개월 복용 후에도 '저장철' 수치가 정상으로 되지 않았다면 추가로 더 복용해야 한다.
- ④ 인체 내의 과도한 철분은 위험할 수 있으므로 피로감이 느껴진다고 단순히 철분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을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
- ⑤ 건강식과 철분, 엽산, 비타민 B₁₂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영양결핍빈혈(철결핍빈혈과 거대적혈모구빈혈)을 예방해야 한다.

빈혈은 말 그대로 우리 몸에서 적혈구가 부족한 것이며 빈혈 자체로서도 중요하지만, 빈혈 자체가 우리 몸 안에 또 다른 심각한 질병이 발생한 징후일 수 있으므로 빈혈이 의심되면 병원에 가서 반드시 상담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빈혈이 발견되었을 경우 치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빈혈 발생의 원인에 관한 철저한 검사가 더욱 중요하다. 정확한 원인 검사 없이 빈혈에 대한 치료를 먼저 하는 것은 빈혈의 원인이 된 질환의 진단을 늦춰지게 함으로써 오히려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만남**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4월의 성가산책에서는 부활의 날 저녁 이야기를 담은 누가복음 24장의 한 구절을 기초로 한 찬송,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481장)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 찬송의 작사자는 스코틀랜드 출신 목사 헨리 F. 라이트(Henry F. Lyte, 1793~1847)이다. 그는 일평생 건강 문제를 안고 살았는데,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정기적으로 요양을 다녀야 할 정도로 고생이 심했다. 딸 안나(Anna Maria Maxwell Hogg)의 증언에 따르면, 1847년 9월, 라이트 목사는 폐결핵으로 인해 하루가 다르게 건강이 악화하는 가운데 가족들에게 한 번 더 설교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한다. 가족들이 만류했지만, 그의 의지는 확고했고, 평소에 즐겨 하던 “가만히 녹슬어 버리느니 닢아 없어지는 게 낫지”라는 특유의 유쾌한 대답과 함께 집을 나섰다. 온 성도들은 숨죽여 그의 설교를 듣고, 성찬을 받았다. 집으로 돌아온 후 그는 찬송 '나와 함께 하소서(Abide with me)'를 가족 친지들과 함께 불렀고, 두 달 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



헨리 F. 라이트 목사
(Henry F. Lyte, 1793~1847)

총 8개의 절로 이루어진 원래의 시 중 몇 개의 절을 소개하고자 한다. (영시의 음절을 맞춘 찬송 번역과 달리 원시의 의미를 충분히 담기 위해 풀어 번역했다.)

1. 나와 함께 하소서. 날이 저물어 어느덧 저녁이 되었나이다.
어둠이 깊어지오니, 주여 함께 하옵소서.
그 누구도 도움 되지 못하고 아무런 위로도 내게 없을 때,
도움 없는 자의 도움 되신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나와 함께 하소서”라는 첫 소절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상실감에 사로잡힌 두 제자와 다가오는 죽음을 바라보던 라이트 목사, 또한 매일의 일상에서 빛이 사라지는 저녁을 맞으며 참 빛에 대한 갈구를 느끼는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대변하는 한 마디가 아닌가 싶다.

2. 인생의 짧은 나날이 썰물처럼 흘러가고,
이 땅의 기쁨은 희미해지며, 그 영광은 사라지나이다
세상 만물은 변하고 썩으나
변함없으신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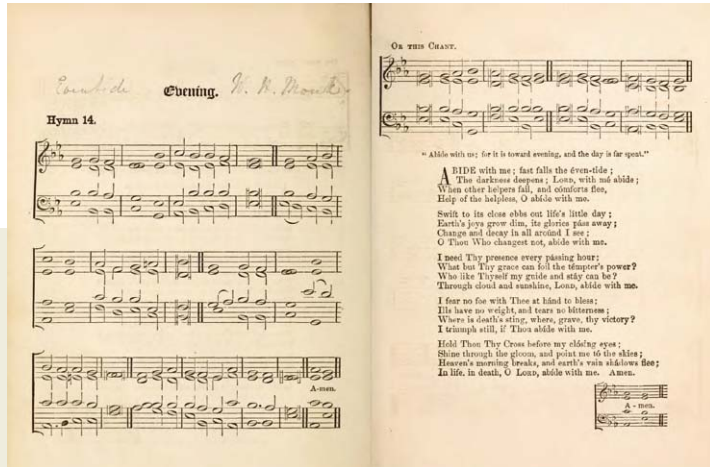
어촌마을 브릭섬(Brixham)이 생애 마지막 24년간의 목회지였다. 시인이었던 라이트 목사는 밀물과 썰물, 폭풍과 잔잔함을 변화무쌍하게 보여주는 바다를 바라보며 인생의 덧없음을 누구보다 깊이 느꼈으리라.

3. 구하옵나니, 한 번의 눈길과 한마디 말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머무신 것처럼 나와 함께 거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친밀하고, 온유하시며, 참아주시고, 자유하신 주님
잠시 스쳐가지 마시고, 내 곁에 머물러 주소서

이 3절은 한국 찬송에서는 생략되었으나, 다시 한번 누가복음의 장면을 시인의 상황에 대입하면서 부활의 날 저녁 그 현장의 간절함을 목격하는 듯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다.

7.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한다면 두려울 것 없나니
질병은 그 힘을 잃고 눈물도 그 쓴맛을 잃습니다
사랑아 네 쓰는 것이 어디 있으며,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도 능히 이길지니, 주여 함께 하소서.

7절 역시 한국 찬송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필자가 매우 좋아하는 구절이 있다. 이 땅의 아픔과 고난은 여전히 있지만,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의 말씀이 인용되면서, 주님의 부활을 통해 죽음에 대한 승리를 선포하는 감동적인 순간이 담겨있다. 같은 구절이 헨델의 <메시아>에서도 No. 50 이중창에 사용되었다.



1861년 고금찬송가 초판

8. 이 육신 눈을 감을 때 주님의 십자가를 보게 하시며
 저의 시선이 어두운 구름 너머의 하늘을 향하게 하옵소서
 천국에서 아침 맞을 때 이 땅의 그림자는 사라지리니 사나 죽으나,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육신의 죽음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영광스럽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순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
 는, 실로 경이로운 장면이다.

이 찬송의 작곡자는 영국의 교회음악가 헨리 몽크(W. H. Monk, 1823~1889)이다. 1861년 역사적인
 고금찬송가(Hymns Ancient & Modern) 편집회의에 참석했을 때 라이트 목사의 시에 맞는 곡이 없음을
 보고 그 자리에서 피아노에 앉아 10분 만에 곡을 완성했다고 한다. 라이트 목사 생전에 본인의 시에 붙
 여 노래하던 곡조가 있었으나, 현재는 몽크의 멜로디가 이 찬송시의 정서를 잔잔하고 담담하게, 때로는
 간절하고 확고하게 담아내며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누가복음에서 부활의 날에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무덤을 찾은 여인들도 아니었고 (여인들에게
 는 천사가 나타나 부활의 소식을 전했다),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무덤으로 달려갔던 베드로도 아니
 었다 (누가복음에는 요한복음과 달리 함께 달려갔던 젊은 제자에
 대한 기록은 없다). 여인들의 이야기를 허탄하게 듣고 믿지 않은
 것도 모자라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에게 오시어, 절망의 길을
 함께 걸으시며,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또 어두운 눈을 밝히
 시어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시는 친밀하신 부활의 주님이 매일의
 여동 속에서 창조주를 기억하며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우리에게
 도 함께 하시길 기도한다. **만남**



백정진 집사
 마포·영등포교구
 베들레헴찬양대 지휘자

신앙 용어 바르게 사용합시다

- 2002년 '기독교 용어 개정안'

헌금 → 봉헌, 대예배 → 주일예배 등



언어는 영혼의 열개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생각이 말과 글로 표현될 때 드러납니다. 신경질적인 성격, 불필요한 논쟁, 성급한 판단, 과잉소비와 무절제한 관계성들은 모두 극단적인 언어의 폐단입니다. 한 세기 전, 격동의 시대에 프랑스 개혁신교회 목사였던 샤를 와그너는 그의 책 『단순한 삶』에서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말은 영혼을 드러내는 탁월한 도구이자 영혼이 제일 먼저 모습을 갖추는 첫 번째 형태다. 말은 생각하는 대로 나오는 법이다. 인생을 단순하게 개선하려면 말과 글을 조심해야 한다. 말은 생각처럼 단순하고 꾸밈없으며 확실하다.’

언어는 영혼이 깃들어 있어 살아있습니다. 창조적이고 변화합니다. 그래서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말의 경우, 사람이 혀를 제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성경(야고보서 3:8)은 말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과 공동체의 정체성과 세계관을 표현하는 언어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의 미에 따라 정확하고 바르게 사용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급격한 시대 변화에 따라 한국 사회의 언어 혼란이 심해질 때 신앙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우려가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의 말과 글의 순화(純化)와 바른 교회용어 사용에 관한 필요성이 한국 교회 내에서 대두되었고 우리 교단(장로교 통합)에서는 지난 2002년 87회기 총회에 서 ‘기독교 용어 개정안’을 통과¹ 시켜 시행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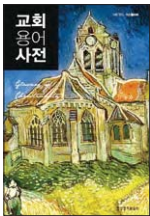
강승훈 목사
관악·동작·금천교구
홍보출판부

교회의 언어를 점검한지 20년이 지났습니다. 신앙 용어에 대한 의도적인 지도가 기존 성도들에게는 혼란을 주었고 젊은 세대에게는 다소 윽박적으로 다가왔다는 의견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1 김성진 기자, 기독교용어연구위원회 기독교 용어 개정안 발표, 기독교보, 2002년 10월 5일.

사용했던 교회 용어를 다시 돌아보면서 시대에 맞는 적절한 용어 선택을 통해 신앙의 의미와 가치를 다시 돌아보고 지켜 나가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 '기독교 용어 개정안'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총 37개(고쳐야 할 용어 18개와 사용하지 말아야 할 용어 19개)의 용어 중에서 자주 오용되는 용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만남**

* 바른 교회용어 사용을 위한 추천 도서



교회용어사전
가스펠서브 기획
생명의 말씀사(2013)



그것은 이것입니다
정장복
정장복
WPA(2009)

기독교 용어 개정안 중 오용 및 변경 단어

교회생활

특송 → 찬송, 찬양
평신도 → 성도, 신도
소경, 장님 → 시각장애인
태신자 → 전도 대상자
사모 → 목사 부인
애굽 → 이집트

예배·예식

목도 → 목상
헌금 → 봉헌
(임직, 결혼, 추도) → (임직, 결혼, 추도)예식
대예배 → 주일예배, 장년예배
성가대 → 찬양대

기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 복을 주시옵소서
대표기도를 해주시겠습니까
→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회의

증경 → 전
사회자 → 인도자

장례

추도식, 제사 → 추모식
소천 → 별세, 하나님의 부르심
명복을 빕니다 →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결식, 고별식 → 장례예식

나는 왜 믿는가?



김영봉 지음 복있는사람 펴냄 2019년

누구나 습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들에는 ‘좋은 습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것과 ‘안 좋은 습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좋은 습관보다는 좋은 습관을 가지길 원합니다. 안 좋은 습관은 노력하지 않아도 몸에 쉽게 배고 좋은 습관은 노력해도 쉽게 익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좋은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익혀가기 위해 무던히 노력을 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도 적용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안 좋은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왜 믿는가?” 질문을 던지는 이 책은 우리의 신앙생활 습관을 점검해보고 되 돌아보는 일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책의 저자인 김영봉 목사님의 강연을 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설교자의 본질에 대해 많이 언급하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설교자가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자로서 얼마나 주님의 부르심에 성실하게 응답하고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는지 늘 돌아보아야 한다는 내용이 지금도 어렴풋이 떠오릅니다.

이분의 이야기들은 이렇게 기본이 되는 부분들, 본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좋은 말과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고 이것들이 우리의 지식을 풍성하게 하고 삶을 윤택하게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본질은 주님께서 알려주신 복음을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처럼 “나는 왜 믿는가?” 이 질문을 늘 가슴에 품고 좋은 습관을 익히는 것처럼 꾸준히 신앙생활의 본질을 되새겨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 책은 소그룹 교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쓰여지기도 했고 초신자들이나 이미 믿는 이들의 개인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묵상집으로 사용하기에도 좋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며 영적인 풍성함 가운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만남**



현성인 목사
IT미디어부

하얀 십자가상(White Crucifixion)

〈하얀 십자가상〉은 1938년 독창적인 소재와 화풍으로 미술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화가 마크 샤갈(Marc Chagall)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십자가 위에 매달린 예수님의 이미지를 특징으로 하여 1930년대 유럽 유대인들을 향해 시작되는 가혹한 박해와 고통에 주목한 작품 시리즈의 첫 번째 작품입니다. “유대의 왕, 나사렛 예수”라 쓰여진 백색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이미 죽음을 맞이하여 움직임이 없이 머리를 숙이고 두 눈을 감고 있고, 대각선의 하얀 빛이 머리를 둘러싼 후광에서부터 십자가 받치의 축대까지 내리비치고 있습니다.

작품의 중심에 위치한 예수님의 몸은 순결을 상징하는 흰색으로 그려져 있으며 그를 중심으로 고통과 박해로 인한 혼란 그 자체였던 당시의 황폐한 풍경 즉, 포그롬(Pogrom)으로 인한 대립과 파괴, 도망치는 난민의 이미지들이 주변부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빛과 구원, 순수를 상징하는 흰색이 고통을 상징하는 요소들의 배경색인 검은색과 대조되어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결국 부활의 영광을 가져왔듯이 분열과 대립, 그로 인한 참혹한 고통의 현실의 마지막엔 결국 화해의 날이 올 것이라는 샤갈의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샤갈은 이 작품을 통해 희생의 상징인 ‘무고한 예수님’과 희망을 강조한 ‘백색의 십자가상’을 통해, 유대교인으로서 본인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했던 그의 소망을 이루어주실 유일한 구원자, 그리고 유대인과 그리스천의 관계뿐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의 가해자와 피해자, 전쟁과 가난의 상처로 얼룩진 악순환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해결사로서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남**

글 정재원 편집위원



포그롬 (Pogrom)

유대인 등에 대한 조직적인 약탈과 학살을 의미하는 러시아어.

“헌신·충성하겠습니다” 80주년 비전을 위한 특별금요기도회

지난 3월 19일(금) 금요기도회가 ‘80주년 비전을 위한 특별금요기도회’로 열렸다. 김운성 위임목사는 ‘슬픔에서 기쁨으로(출애굽기 1:1~7)’ 말씀을 통하여,



“능력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라는 직분과 사명을 주셨으니 무릎을 꿇어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하고 충성하자”고 권면했다. 김 목사는 이어 “영락교회가 도시의 중심에 있는 이유가 있다. 영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는 교회로 반드시 부흥할 것이며 우리의 손을 펴서 어려운 교회를 도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될 것을 믿는다”고 전했다.

이날 기도회에서 참석자들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뜨겁게 기도했다. 믿음으로 기쁨으로 헌신하는 특별헌금 목표 300억 원을 위하여 위임목사를 선두로 교역자들은

1% 헌금을 작정했다. 참석자들은 이어 80주년을 넘어 100주년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과 다음세대를 위하여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사명을 다하는 이 세대가 되기를 결단했다.

취재 최윤미 기자

+80주년 비전을 위한 기도제목+

1. 교회와 섬기는 이들을 위한 기도
2. 기도로 이루어져가는 사역을 위한 기도
3. 교회 공동체의 하나 됨을 위한 기도
4. 사역의 과정과 열매를 위한 기도

만세삼창과 애국가 울려 퍼진 3·1절 기념예배

3·1운동 104돌을 맞은 지난 3월 1일(수) 1부 수요기도회를 3·1절 기념예배로 드렸다. 황숙희 권사(제1여전도회 회장)의 인도, 박옥경 권사(제2여전도회 회장)의 기도, 김은혜 집사(제4여전도회 회장)의 성경봉독, 할렐루야찬양대의 찬양에 이어 강승훈 목사가 사무엘하 19장 31~39절 말씀으로 ‘대성약결(大成若缺)’이란 제목의 설교를 했다. 강 목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생명과 인생을 던져 헌신하며 어두운 시대 빛이 되었던 믿음의 선진들의

근본적인 힘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며 “그러한 믿음의 신비와 지금도 생명의 약속을 이어가시는 하늘의 능력으로 ‘대성약결(大成若缺)’의 승리를 경험하는 은혜의 역사가 완성되어 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박정운 권사(제3여전도회 회장)의 독립선언문 낭독 후, 모두 일어나 정상봉 은퇴장로의 선창으로 “대한독립만세” 만세 삼창을 외쳤고 애국가 제창과 주기도문으로 기념예배를 마쳤다.

취재 김경옥 선임기자

선교부, 제1여전도회와 7개 농어촌교회 방문

선교부(부장 김재완 장로)의 제1여전도회(회장 황숙희 권사) 회장단과 국내선교 농어촌선교팀은 지난 2월 28일(화) 진주노회 소속 농어촌 4개 교회(지남, 흰돌, 신월, 화강교회)와 3월 9일(목) 서울노회 소속 농어촌 3개 교회(서면, 무왕, 단석교회)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한 교회는 대부분 출석 교인 수가 10명~20명 내외로, 70세 이상 교인이 90%에 이르는 등 재정적으로도 열악한 환경에 있었다. 방문단은 이들 교회를 위해 다함께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다. 이번 방문 교회 중 단석교회(사진)는 현 위임목사가 부임한지 1년 만에 성도수가 4배 증가하여, 3년 내 자립 목표를 가지고 왕성한 목회 활동이 이



뤄지고 있다. 또한, 교회 입구 벽화를 위한 무왕교회를 위해 선교부 영락미술인선교회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제공 선교부

“환영합니다”... 새가족 165명 수료식·환영회

새가족부(부장 김명권 장로)는 3월 26일 주일 본당에서 찬양예배를 새가족환영회로 드리며 새가족 수료식 및 간증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수료식에서는 새가족으로 접수하여 5주간 교육을 마치고 등록한 성도 165명이 수료증을 받았다. 김운성 위임목사는 수료자들을 향해 “한 식구가 된 것을 환영하고 축복한다”며 “믿음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여 영락의 성도로 깊게 뿌리 내리길 바란다”고 권면했다. 이어 제2식당에서 박성은 목사의 사회로 열린 초청 만찬에서는 조두진 안수집사의 기도, 호산나찬양대 남성중창



단의 특송으로 은혜의 분위기를 더했다. 새가족으로 등록한 성도들은 동반한 가족과 함께 김운성 위임목사와 기념사진을 촬영하며 기쁨의 시간을 가졌다.

취재 김경옥 선임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우리 자녀 하나님께 맡깁니다”... 청소년 부모 기도회



새 학기 시작을 맞아 지난 3월 2일 50주년기념관 드림홀에서 교육부(부장 박홍준 장로) 주최 교회학교 중등부-고등부 연합 ‘청소년 부모 기도회’가 열렸다. 중등부 부장

차남수 장로 기도로 시작하여 방덕중 목사(교육전담)가 출애굽기 17장 8~16절 말씀으로 설교했다. 방 목사는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믿음의 태도로 생각해보자”며 “우리의 가장 큰 적인 불안을 떨쳐버리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로 자녀를 양육하는 신앙의 부모가 되자”고 권했다. 이어서 이영호 목사(고등부)가 이끄는 기도 시간에 학부모들은 모든 염려와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온전히 신뢰하는 기도를 드렸다.

취재 최윤미 기자

믿음의 부모 믿음의 자녀, 53기 유니게학교 대면 개강

53기 유니게학교가 4월 1일 개강한다. 유니게학교는 ‘믿음의 부모, 믿음의 자녀’(디모데후서 1:5)를 교육 표어로 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위한 12주간의 교육프로그램이다. 교육 내용은 가정과 부부, 부모 자녀 관계에 대한 기독교적 가치관과 태도를 형성하는 것으로, 개인적 신앙의 성숙과 구체적인 지식과 방법을 가정 안에서 실천하는 목표를 가지고 교육한다. 이번 학기에는 어린이 33명 등 27가정이 함께한다. ‘유니게학교에 왔어요!’라는 주제로 열린 개강예배에서는 반별 단체사진 촬영을



시작으로 어린이를 위한 음악, 체육 수업과 부모님을 위한 소그룹 나눔을 준비했다.

제공 최하영 전도사(영아부)

보성여중·고 신임 교장 취임

보성학원(이사장 정천우 장로) 보성여중·고등학교가 신임 교장을 맞았다. 제17대 보성여자고등학교 교장으로 취임(2023.1.31)한 윤치명 교장은 행복한미소교회(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집사로 섬기고 있다. 보성여자중학교

제13대 교장으로는 이자현 교장이 취임(2023.3.2)했다. 이 교장은 흰돌교회(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집사로 섬기고 있다.

제공 보성학원

영락 가족사진 페스티벌, 5월 7일까지 사진 공모



목양부(부장 정경섭 장로) 주관 <영락 가족사진 페스티벌>이 3월 19일 주일 시작되었다. 5월 7일 주일까지 진행되는 이 축제는 교회내 포토존인 50주년기념관 1층 카페 좌측 벽, 50주년기념관 2층 유치부 로비, 베다니광장 마당, 봉사관 앞마당(본당 올라가는 계단), 선교관 옆(시크릿 가든) 및 자유로운 장소에서 촬영한 사진을 접수(5월 7일 마감)하여 시상(대상 50만원, 금상 30만원, 은상

20만원, 동상 10만원, 장려상 5만원 상당, 입선)하고 사진전을 연다. 이 행사는 가족과 함께 사진을 찍어 추억을 기록하고, 또 사진 전시회를 통해 평소 잘 알지 못했던 교우들과 그 가족을 보며 신앙의 교제를 나누는 목적으로 기획됐다.

취재 김경옥 선임기자

영락여성장학회, 제12차 정기총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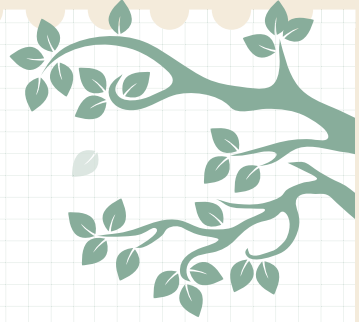
여성 목회자를 세우기 위한 영락여성장학회(회장 김안순 은퇴권사)가 3월 22일(수) 50주년기념관 301호에서 제12차 정기총회를 가졌다. 임원 및 후원회원이 참석한 이날 총회는 경건회와 사업보고로 진행되었다. 경건회는 부회장 나선환 은퇴장로의 기도에 이어, 성경봉독

(사무엘상 17:40), 한빛중창단 찬양, 최승도 목사(한경직기념사업회)의 말씀으로 이어졌다. 장학회는 2023년 1기분(상반기) 장학금을 김예찬(장신대 신대원), 이향숙(아세아연합신대 신대원), 김은영(이화여대 대학

원), 오델에슐리(송실대 기독교통일지도자학과) 등 4명에게 지급했다. 장학회는 지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여성 신학생 19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며 여성 리더를 키웠다.

취재 김경옥 선임기자

제63회 산상기도회



주제 : 말씀 따라 행진하라(민수기 9:23)
 말씀 :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골로새서)
 날짜 : 4월 26일(수)~28일(금)
 장소 : 본당
 강사 : 유기성 목사 | 선한목자교회 원로, 위지엠(With Jesus ministry) 이사장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골 1:27)

	4/26(수)	4/27(목)	4/28(금)
06:00~07:00		새벽기도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골 1:24~29)	새벽기도회 무엇이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 (골 3:12~17)
10:30~12:00		오전기도회 나는 죽고 예수로 살라 (골 2:6~19)	오전기도회 예수로 사는 가정 (골 3:18~4:1)
14:00~17:00		성경통독	성경통독
19:00~21:30	저녁기도회(개회) '오직 예수'의 신앙 (골 1:9~23)	저녁기도회 위의 것을 찾으라 (골 3:1~11)	저녁기도회(폐회)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골 4:2~6)

※ 올해부터 산상기도회를 4월에 갖습니다. 여름 산상기도회는 특별금요기도회로 열립니다.

2023년 4월호 통권 590호

발행 2023. 4. 1.

발행인 김운성

편집인 김태영

편집위원 권오란 박선이 정용성 김경옥
 김성문 김성수 류정현 박진현
 안동현 안하윤 이동훈 이재향
 이혜순 인 미 정재원 최윤미

교열 계영희 이광미 유승호

발행처 영락교회 홍보출판부

주소 04552 서울시 중구 수표로 33

전화 02)2280-0114(대)

홈페이지 <http://www.youngnak.net>

디자인 design D.I

스마트한 e세상, 웹진 만남



인터넷 브라우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www.youngnakmn.net



월간「만남」웹진



월간「만남」앱
안드로이드용



월간「만남」앱
아이폰용

WHAT LOVE IS THIS?

〈어떤 사랑일까?〉

지휘 : 장세완

피아노 : 전은배

출연 : 호산나 찬양대 & 오케스트라

호산나 여성중창

조이플 시너즈

영락 고등부 찬양대

Joyful Sinners

- Benedictus / Robot Arwyn

Hosanna Choir

- Festive Mass / 백유미

호산나 여성중창

- 우리 때문에 / David Meece (Arr. 감기영)

고등부 찬양대

- 내 영혼에 햇빛 비쳐 / 이호준

Hosanna Choir

- What Love is This? / Mary McDonald

2023년 4월 9일 6:00pm

영락교회 베다니홀

주최 영락교회 음악부

주관 영락교회 호산나찬양대



마크 샤갈(Marc Chagall), Oil on Canvas, Art Institute of Chicago, 1938

하얀 십자가상

White Crucifixion